소년단

1964. 2

원수님이 주신 새옷을 다입고

당과 원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행복을 배움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는 리현 중학교 단 모임

우리 나라 소년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행복과 기쁨이 늘어만 간다.

이번에 당과 원수님께서는 새해 선물로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겨울옷과 모자를 보내 주셨다.

지난해 례년에 드문 대풍이 들어 농촌의 집집마다 많은 곡식과 현금을 분배 받아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또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이 처럼 큰 선물을 보내 주었으니 이 기쁨 이 행복 어디에다 비기랴!

새옷을 타입은 농촌의 어린이들은 지금 당과 원수님의 이 크나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당과 원수님이 주신 옷을 타입고 기쁨에 넘쳐 학교에 오는 평양시 락랑 구역 토성 중학교 인민반 어린이들.

평양시 락랑 구역 락랑 협동⇨ 농장원 장 지술 아저씨네 집에서는 당과 원수님께서 주신 겨울 옷을 세벌이나 받았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2

1964

차 례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 학교 시절 (제 11 회) ………… 강 효순 (4)

아동단원들처럼 학습 하십시오 ………… 백 학림 (10)

실화

청운 마을의 《종달새》들 ………… 김 준규 (25)

한 점의 불꽃 ………… 본사 기자 (29)

《꼬마 목장》 기사들 ………… 연 일덕 (38)

과외 학습

❇ 학습 문제 풀이 ………… (32)

❇ 우리가 라지오를 듣게 되기까지 ………… 전 락희 (52)

❇ 인력이란 무엇인가? ………… 리 한갑 (35)

세계에 이름난 작가 — 농민 시인, 애국 시인, 리 규보 선생 ………… 리 자응 (41)

알아 두기 수첩 ………… (55)

체육과 스포츠 지식 —달리기 ………… (62)

이것을 아십니까

소금이 열리는 나무 ………… (27)

왜 낮과 밤이 생길가요 ………… (40)

대담한 중대장 ………… (17)

서 강 렴 ………… (21)

문예

소설 새로 돌아 온 야학생 ………… 송 영 (44)

련재 그림 — 서대쥐 전 (2 회) ………… 백 준선 (13)

동화 만화 —사슴이네 동산 (2) ………… (58)

독자란 ………… (55)

그림 이야기—큐바의 소년 영웅-마누엘 ………… (49)

만화

피돌이 ………… 안 창수 (38)

일남이 ………… (56)

자세를 바로 합시다. ………… (60)

꼬마 진료소 ………… (48)

유쾌한 오락실 ………… (63)

현상 문제 ………… (64)

3월 중, 단 분단, 반들에서 할 일 ………… (63)

표지 1 면 …… 인민 군대 아저씨들처럼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11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천

《그런데 허풍선이가 누구냐?》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 건너 기와집에 있는 돼지 장로 아들 말이야, 요즘은 자전거까지 사다 놓구 노상 우쭐거린단다. 그런데 이 너절한 아이들은 저마다 자전거를 밀어 주겠다구 야단 법석이란다.》

《씨, 밀어만 주는 줄 아니? 타기두 하는 거야.》
하고 뒤에 서고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밀어 주구 한두번 타 보면 뭘 하니, 자전거 못 타서 죽겠니? 허풍선이네 하인처럼 줄줄 따라 다니면서 그게 뭐냐 말이야, 에익 메스껍다 퉤 》
하고 윤병이는 침을 툭 뱉았습니다.

《야, 너 몇 학년에 붙었니?》

어제 만났던 칼칼하고 눈이 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보습반 1 학년에 붙었어!》

《5 학년 말이지, 그럼 우리들과 같이 공부하게 됐구나! 됐어! 우리 반에 또 한 명 늘었단 말이야!》

그 애는 손'가락을 마주치며 《딱》하고 소리를 내면서 단지팽이처럼 생긴 아이를 흘깃 바라 보았습니다.

《또 한 명 늘었다! 얼씨구 좋다!》

단지팽이처럼 생긴 아이는 두 손을 쑥 벌리더니 둥기둥기 춤을 추면서 뺑그르 돌았습니다. 이 바람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원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애들아!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너희들두 알구 놀아라.》

단지팽이처럼 생긴 아이는 제 동무들을 쑥 둘러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의 외조부야, 그만하면 알만하지, 그리구 이름은 뭐라구 하더라?》

그 애는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성주라구 부른다.》

원수님의 대답이였습니다.

《우리들의 이름두 알아 둬라, 내 이름은 덕범이라구 부른다.》

이 때에 누가 뒤에서 《덕범이라구 하면 잘 모른단다, 배나무 방치라구 해야 제깍 알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네 마음 대로 불러라! 그렇지만 그건 나한테 끔짝 달싹 못 하는 아이들이 지은 별명이란다.》

이렇게 말하며 덕범이는 원수님을 흘깃 바라 보았습니다.

《난 덕범이라구 부를 게 걱정 말아라.》

원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 애는 주먹으로 코를 쑥 문지르더니 싱긋 웃었습니다.

《여기 빼빼 마른 이 애는 인삼이라구 부른단다. 그런데 인삼인 왜 그렇게 갈따구처럼 빼빼 말랐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아이들은 인삼이라구 부르지 않구 개삼이라구 부른단다.》

이 말에 아이들은 와그르 웃었습니다.

9

이 날 개학식이 있은 후에 새로 입학한 1학년생들의 학부형들만 교실로 들어 가고 상급생들은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생들은 운동장 청소를 하고 녀학생들은 꽃밭을 꾸미게 되였습니다.

5, 6학년 학생들은 도구들을 정비해 가지고 현관 앞에 모였습니다.

《올해두 또 나무를 심기야? 나무는 매해 심어서 뭘해, 자래우지두 못 하는걸!》

키다리라는 별명을 가진 호철이가 뒤에서 투덜거리는 것이였습니다.

《잘 자래워 보자꾸나.》
하고 누가 곁에서 대꾸하자 그 애는

《흥! 오늘 삽목을 하고 래일은 뽑아서 말뚝치기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구 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키 크면 승겁단 말이 옳아! 넌 그럼 심은 나무를 뽑아서 말뚝 치기 할 작정이냐.》

덕범이의 말이였습니다.

《까불지 말어라, 한 개 얻어 맞구 조 이마에 혹을 붙이구 싶으냐.》 하며 그 애는 덕범이 앞으로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흥! 키다리한테 누가 맞겠다던? 붙을 테면 붙어라!》

덕범이는 모자를 척 뒤로 돌려 쓰더니 뿔쌈하려는 송아지처럼 노상 머리를 내젓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깔깔 웃어댔습니다.

이 때에 강 선생이 작업복에 운동모를 쓰고 거기에 나타 났습니다. 아이들은 와그르 제자리로 달려 갔습니다.

강 선생은 학생들의 얼굴들을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덕범이는 씨름판에 나가려는 모양이구만!》

덕범이는 이 때에야 모자를 돌려 썼던 것이 생각 나서 당황히 모자를 바로 썼습니다.

아이들은 또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강 선생은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대로 서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산과 마을에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산을 좋아 했고 나무를 좋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산림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 하게 하였으며 산'불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함부로 찍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나무 심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우리 조상들은 500여 년 전에 서울 일대에 수 많은 나

무를 심었고 산에 산림 보호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한 합병》이후로부터는 나무를 심으지는 않고 찍어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류역을 비롯해서 무진장한 원시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큰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삼림 자원을 매 년 700만 립방씩 찍어 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목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강 선생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입술을 약간 떨 뿐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8 도구를 떠나던 날 나루터 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가는 일제 강도들을 생각하면서 원수님은 두 주먹을 떨었습니다.

강 선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일한 합병〉이후 10 년 좀 남짓하였는데 우리 나라 삼림 자원은 벌써 20 프로가 감소되였습니다. 백두산 일대에서 만도 100만 정보의 원시림이 없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산에 불을 놓고 화전을 이룹니다. 여기서도 많은 삼림이 없어집니다. 나무를 심지는 않고 삼림 자원을 없애기만 하니 우리 나라 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거숭이 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장마철에 비'물이 일시에 흘러서 홍수가 지게 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산마다 나무가 우거지면 삼림 자원도 풍부해 지며 짐승들도 많이 번식할 수 있으며 홍수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 때에 덕범이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며 닁큼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하시오.》

덕범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나무를 자꾸만 심어도 베 가는 놈이 있으니까 심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강 선생은 덕범이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싱긋 한 번 웃고 나서

《덕범이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바라 볼 뿐 대답할 말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이 때에 원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과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원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대답하시오.》

강 선생의 말이였습니다.

《네.》

원수님은 침착하고도 억센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나무를 찍어 간다구 해서 팔장을 찌르구 앉아 있겠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찍어 가면 두 그루, 세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도적놈이 쌀을 도적질해 간다구 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원수님은 덕범이를 한 번 쓱 바라보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나무를 심으면 30 년이나 40 년 후에야 그 나무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들의 나이두 50이 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까지 우리 나라의 나무들을 왜놈들이 계속 찍어 가게 내버려 두잔 말입니까.》

원수님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여기서 끊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빛이 막 튕겨 나오는듯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 선생은 머리를 끄덕이며 만족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는 신작로 쪽을 한 번 바라보더니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성주 학생의 말이 아주 옳습니다. 도적놈이 쌀을 도적해 간다구 해서 농사를 짓

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더 잘 지으면서 도적놈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빼앗긴 나라라구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아름답게 꾸리면서 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먼 곳에 가서 나무를 심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자는 것입니다. 전체 3천만 동포들이 자기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꾸리고 자기 향토를 사랑한다면 우리 나라 전체가 아름다와질 것입니다……》

강 선생은 계속하여 나무를 심을 때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각각 나무를 심오도록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도구들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삽목을 하기 위하여 백양나무에 올라 가서 가지를 꺾는 아이도 있고 아카시아 묘목을 찾기 위하여 밭둑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백양나무나 아카시아보다도 좀 더 아름다운 나무를 심으고 싶었습니다. 원수님은 삽을 둘러 메고 학교 뒤로 올라 가는 윤병이 곁으로 달려 갔습니다.

《윤병이 너는 무슨 나무를 심으겠니 ?》

《글쎄 산에 올라 가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떠 올 작정이야.》

《소나무를 떠다 심는 것이 어떠냐. 두 개를 떠다가 학교 정문 량편에 심잔 말이야.》

원수님은 소나무를 무척 좋아 했습니다. 백양나무나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 만큼 빨리 자라지는 못 하지만은 사시장철 변하지 않고 푸르러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에 다른 나무들은 모두 잎이 떨어져 마치도 추위에 항복이라도 한듯이 앙상하고 쓸쓸하게 서 있는데 오직 소나무만은 청청한 옛 빛 그 대로 안고 꿋꿋이 서서 모진 눈바람과 싸우고 있는 용감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수님의 제의에 윤병이도 찬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끼와 가마니를 얻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소나무는 많지만은 마음에 드는 나무는 좀처럼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내 크거나 그와는 반대로 너무 작아서 합격될 수 없었습니다.

《야, 여기 멋진게 하나 있다.》

윤병이가 소리쳤습니다. 원수님은 그리로 달려 갔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모양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때 이만했으면 됐지 ! 》

하고 윤병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나무는 안 돼.》

원수님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너 산판을 다 돌아 본들 이보다 더 모양 있는 걸 찾아 낼 듯 싶으냐.》

《모양도 좋고 크기두 알맞지만은 이 나무는 외따루 서 있기 때문에 캐가면 산 경치가 나빠져서 안 돼. 나무가 많이 서 있는 데 가서 골라 보자.》

이 말을 들은 윤병이는 머리를 끄떡이며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들은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 곳에서 아주 모양 있는 나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발견했던 나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응! 됐어! 우선 이것부터 캐자.》

그들은 소나무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질 세라 어린애 다루듯이 정성 들여 팠습니다. 뿌리에 붙은 흙을 남겨 놓고 주위를 동그랗게 파 낸 후에 가마니로 흙을 싸고 새끼로 챙챙 감았습니다.

이 때에 아이들이 한 패 밀려 왔습니다.

《야! 너희들 아주 멋진 소나무를 캤구나.》

《우리들도 도와 주지!》

《야! 이런 나무들만 학교 주위에 쭉 심었으면 아주 멋지겠는데.》

아이들은 떠들썩 고아댔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나무를 찾으려고 다시 산판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적당한 소나무가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야, 암만 돌아 다녀두 못 구하겠다. 아까 그걸 캐 가구 말자!》
하고 윤병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까 찾아 낸 그 나무를 캐 가구 그대신 다른 소나무를 한 그루 캐다 그 자리에 심어 놓자꾸나.》

《응! 그것 참 멋진 생각이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들은 처음 발견했던 나무를 캐고 그 자리에는 빽빽히 들어 서 있는 곳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캐다 정성스럽게 심어 놓았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과 함께 소나무를 메고 학교 정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리로 우르르 모여 들었습니다. 나무 심기를 끝내고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도 그리로 몰려 왔습니다.

《너희들은 뭘 그리 꾸물거리구들 있니, 그러다간 하루 종일 나무만 심다 말겠구나.》

호철이가 스적스적 걸어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무슨 나무를 심었냐.》

윤병이가 물었습니다.

《백양나무를 심었다.》

《백양나무 가지를 하나 꾹 찔러 놓구서 소나무를 심는 우리들을 비방하는거냐.》

《백양나무건 소나무건 한 그루 심으면 될게 아니가. 흥! 소나무보다두 백양나무가

나을지 모르지》

《더 낫다구?》

《낫지 않구, 백양나무는 꽂아만 놓으면 살지만 소나무는 살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니?》

《너처럼 그렇게 쉬운 일들만 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에 시작두 못 할 게아니가.》

《쉽게두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어려운 일을 시작해 가지구 남들까지 집에 돌아 가지 못 하게 할 게 뭐란 말이가. 봐라, 다른 아이들은 모두 벌써 끝내지 않았니. 너이들 때문에 숱한 아이들이 집에두 못 가구 있단 말이야.》

《넌 화로'전에 엿을 붙여 두구 온게로구나. 왜 자꾸만 집엔 가구 싶어 그러니.》

곁에 서고 있던 아이가 툭 쏘아 주었습니다.

《래일부터는 책상 앞에 딱 마주 앉아 공부를 해야 하는거야. 노는 것두 오늘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 운동장에서 홍충 망충하는게 좋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는데 강 선생이 꽃밭 쪽에서 이리로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삽 이리 다구, 내 구덩이를 파 줄게.》

호철이가 강 선생을 슬슬 바라보며 곁에 서고 있던 아이의 삽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소나무 아주 모양 있는데! 누가 캐 왔소.》

강 선생이 물었습니다.

《윤병이하구 중국서 온 이 학생이 캐 왔습니다.》

곁에 서고 있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심어서 잘 키웁시다. 그런데 흙을 팔 때에는 우에 있던 흙과 아래 있던 흙을 한데 섞지 말구 따루 쌓아 놓았다가 나무를 구덩이에 넣구 흙을 메울 때는 곁에 있던 흙이속으로 들어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식토가 나무 뿌리 가까이 닿을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의 방향을 본시 서고 있던 그 방향 대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수고를 하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강 선생은 꽃밭을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야 허리 아파 못 파겠다. 네가 파라.》

강 선생의 모습이 사라지자 호철이는 삽을 주인 아이에게 돌려 주고 손의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삽을 빌려 주었던 아이는 아니꼬운 눈초리로 호철이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님과 윤병이들은 강 선생이 시키는 대로 흙을 따로 쌓아 가며 계속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구덩이를 다 파고 정작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 본시 서고 있던 나무의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지가 동으로 뻗었고 어느 가지가 남으로 뻗었댔는지 통 알 수 없었습니다.

《야단인데!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무 가지에 표식이라두 해 왔을건데.》

윤병이의 말이였습니다.

《방향이 관계 있니 뭐 아무렇게나 심으면 되지! 물만 매일 주면 살 수 있는거야.》

호철이의 말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니?》

《그럼 뭐 방법이 있니, 나무 가지에 입을 대고 물어 보렴아! 어느 가지가 남쪽으로 갔댔구 어느 가지가 북쪽으로 갔댔냐 하구 말이야》

호철이는 입에다 손을 척 대고 시늉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고 있던 아이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두 아는 방법이 있을거야.》 하며 원수님은 나무 가지를 찬찬히 살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이 가지는 남쪽으로 뻗었던 거구 이 가지는 북쪽으로 뻗었던거야.》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니?》하며 아이들은 원수님 앞으로 주르르 모여 들었습니다.

《봐라, 이쪽에는 다른 데보다 가지두 많이 붙었구 또 길게 자라지 않았니? 그런데 이쪽을 봐라, 가지두 적게 붙었구 짧게 자라지 않았니.》

《길게 자랐다구 남쪽으로 뻗은 가지라는 걸 어떻게 아니.》

호철이가 눈이 둥글해서 물었습니다.

《넌 남쪽은 북쪽보다 해'빛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두 모르냐, 리'과 공부하구는 영 외면했구나.》
하고 윤병이가 툭 쏘아 주었습니다.

《응! 정말 그럴듯 한데!》

아이들도 감탄했고 호철이도 벌씬벌씬 웃으며 나무 가지를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아 내며 새로운 것을 찾아냈을 때에는 유쾌하고 기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 졌을 때에는 더욱 기쁜 것입니다. 그리 큰 발견은 아니였으나 동무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던 것을 알아내게 되자 원수님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깊고 험한 산에 들어 가서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알아 낸다면 위험한 길에서 구원을 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아동단원들처럼 학습하십시오

백 학 림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원수님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원쑤를 무찌르는 싸움에서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열성이 있고 혁명에 충직하려고 해도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혁명하는 사람의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우리의 혁명 투사들은 원쑤와 싸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짬만 있으면 공부하였습니다.

항일 투사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공부하였으며 숙영지의 우둥'불가에서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가? 그 목적을 똑똑히 아는 것과 다음은 규률 있게 꾸준히 자각적으로 학습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소년 신문》이나 《소년단》 잡지에서 우리의 소년단원들이 조국 앞날의 쓸모있는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규률있게 열심히 학습하여 전교생이 모두 우등, 최우등생이 되고 《모범 소년단》이 된 평북 룡천군 부라 중학교, 평북 창성군 약수 중학교, 평북 대관군 수동 중학교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몹시 감동했습니다. 나는 이제 《소년단》 잡지를 통해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이 어떻게 규률 있게 학습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몇 마디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에는 열세 가지의 의무와 규률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대담할지라도 학습을 게을리 한다면 훌륭한 아동단원이라 할 수 없다.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싸우라—

이것은 유격대원 아저씨들을 도와 왜놈을 쳐 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우리 아동단원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원들의 학습 조건이란 오늘 동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였습니다. 유격근거지에 창설된 학교란 지금 동무들이 공부하는 학교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산당이나 큰 농가'집이였습니다. 학생은 고작해야 20~30 명 정도씩이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교과서와 학용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습 도구란 오직 사판(보드라운 흙이나 모래를 넣은 나무통)이였습니다.

겨울이면 추운 귀틀집에 앉아 학습하였고 여름이면 왜놈들의 토벌도 피하는 겸 산에 올라 가 큰 나무 밑에 모여 앉아 도토리나무'잎이나 봇나무 껍질에 숯'덩이로 글을 써 가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왜놈들의 토벌이 심한 날이면 부득이 학습을 중단하고 유격대를 도와 싸웠고 토벌대 놈들에 의하여 불타 버린 학교나 혹은 인민들의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싸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단원들은 학습 규률을 절대로 위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어려울수록 학습을 잘하여 한 자라도 더 많이 알아야 하루 속히 왜놈들을 쳐 부시고 조국을 찾을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구 하나 조국을 빼앗고 부모를 학살한 원쑤—왜놈을 무찌를 힘을 키우는 이 학습을 게을리 할 수 없었습니다.

《학습은 전투이다.》

이것이 그 때 우리 아동단원들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조를 무어 서로 방조하였고 학습 규률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곧 충고와 비판으로 시정해 주었습니다.

유격대를 도와 보초를 섰다거나 통신 련락을 갔다 온 후에도 밀린 학습은 어떻게 하든지 그 날 배운 것은 꼭 그 날로 알고야 지나 갔습니다.

아동단 조직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학습하고 시간이 없으면 마는 따위의 규률 없는 행동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다닌 아동 학교에 김 동무라는 아동단원이 있었습니다. 김 동무는 부모를 왜놈들에게 잃고 동생과 같이 삼촌네 집에 살았습니다.

학교가 설치되였지만 학교가 있는 부암까지 다니려면 매일 왕복 60 리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조직에서는 김 동무의 학습을 위해 공부를 잘하는 리 동무와 조를 짜 주었습니다. 동무의 애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한 리 동무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김 동무를 자기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몇 주일 늦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김 동무는 그 만큼 학습에 떨어 졌습니다.

(아동단에서는 학습도 전투가 아닌가, 만

(이 말을 기억합시다)

《당'적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 하고 죽는 것이 원통합니다.

이 당증을 당 중앙 위원회에 전하여 주오. 그리고 이 돈으로 나의 마지막 당비를 물어 주시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싸움터에서 간호병 안 영애 누나는 적기의 폭격 속에서도 굴함 없이 부상병들을 구원하다가 희생되였다. 이 글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의 한 구절입니다.

약 내가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학살한 원쑤를 갚는다면 그 만치 떳떳하지 못 하지 않는가. 학습도 내 노력으로 해야 한다.)

리 동무의 도움을 받으며 김 동무는 항상 이렇게 생각 하였습니다.

남다른 노력에 의하여 김 동무는 몇 주일 만에 읽고 쓰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조직에서는 김 동무의 학습을 더 방조하기 위해 《지주는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라는 책을 주며 그것을 읽고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김 동무는 열 번 스무 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뒤'산에 올라 가 나무를 사람으로 여기고 말하는 련습도 해보았습니다.

며칠 후 김 동무는 책 내용과 함께 자기 부모와 다른 동무들의 부모들이 지난날 겪은 이야기를 섞어 가면서 실감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동단원들이 혁명 과업인 학습을 어떻게 규률 있고 열성있게 했는가 하는 한가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습은 오직 이처럼 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인재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으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아동단원들은 글'자 하나를 배워도 그것이 우리 조국을 빼앗고 부모를 학살한 왜놈들을 쏘아 죽일 총알이 되도록 쓸모 있게 배웠습니다. 짬만 있으면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곤봉(당시 우리는 곤봉을 무기로 가지고 다녔다)으로 산 높이와 거리를 재는 련습도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직 생활에 충실하였고 오직 규률 있게 학습하여 혁명의 꽃봉오리로, 김 일성 장군님의 나어린 전사로 씩씩하게 자라 났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혁명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전체 인민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며 나아가서는 우리 삼천리 강토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해 놓아야 합니다.

동무들은 장차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의 뒤를 이어 이 영광스러운 혁명 임무를 이어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넘겨 준 이 영예로운 혁명 임무를 잘 수행하자면 조직 생활을 잘 하면서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흘러 간 시간은 동무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초를 아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련재 그림

서대쥐전 (2회)

글 백 준선　　그림 전 의남

⑩ 한편 다람이들은 코를 고느라고 서 균의 군사들이 토끼 그릇까지 몽땅 날라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하긴 입고 자는 울긋 불긋한 갖옷까지 벗겨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사이 밤은 깊어 이제는 새벽 밝아 올 녘이 되였다.

다람이의 석굴 안 대청에도 새벽 찬 바람이 쌀쌀하게 스며 들고 초'불만 가물가물 타 들고 있다.

다람이의 우두머리 평 정은 술'기가 깨면서 찬 기운이 오싹오싹 뼈'속으로 스며 드는 것을 느끼자 잠'결에 벌떡 일어 났다.

좌우를 살펴 보니 모두들 벌거 벗은 채 너덜너덜 떨면서 코를 골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평정은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⑪ 두령의 고함 소리에 가까이에서 자고 있던 다람이들이 먼저 깨여 났다.

갑자기 한 젊은 다람이가 평 정의 앞으로 빠르르 뛰여 나오더니

《두령님, (우두머리) 이 모진 추위에 어찌하여 알몸으로 계십니까? 감기 드시겠습니다.》하고 아뢰는 것이였다.

평 정은 자기 몸을 굽어 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순간 그 젊은 다람이를 마주 쳐다 보니 그 역시 발가숭이로 머리도 맨머리'바람이였다.

《너도 발가숭이가 아니냐?》

이리하여 다람이의 온 집안이 서로 마주 쳐다 보고 놀라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 한다.

참말 기막힌 일이였다.

어느새 벌써 동쪽 창문이 허옇게 밝아 왔다.

⑫ 다람이들을 거느리며 다스리는 평 정은 누구보다 한숨을 길고 굵게 내 뿜었다.

《옛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흥에 겨우면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연 옳구나. 우리가 술 마시고 잠 든 동안 도적이 들어 왔었다. 나라를 망케 하고 집안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술인데 내가 잘 못 하였다. 술은 삼가야 했을 것이다!》

평 정은 이렇게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다가 자리를 차고 일어 나서 곁의 젊은 다람이들과 함께 안 방으로 들어 가 살펴 보았다. 구석 구석에 걸렸을 갖옷과 보물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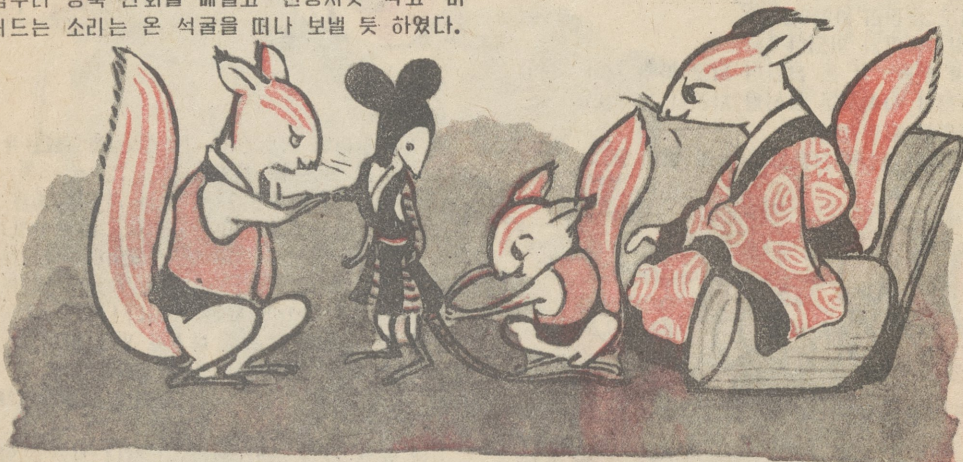
고방 문을 열게 하고 들어 가 보니 거기도 역시 평 구어 먹은 자리다.

평 정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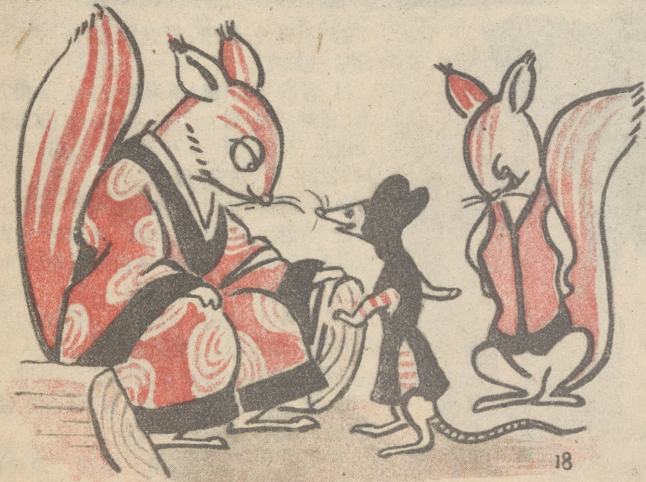
《보물이나 가장집물은 잃어서 큰'일 없지만 올 같은 흉년을 생각하고 여러 해 채 아껴 먹으면서 간수해 둔 식량이 하루'밤 사이에 몽땅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하랴! 남한테 앗겨서 분한 것은 고사하고 이런 흉년에 우리가 뭣으로 목숨을 잇는단 말이냐》

두령이 눈물을 흘리자 다른 모든 다람이들도 이 참혹한 일에 모두 억이 막혀 눈물만을 흘렸다.

⑬ 다람이들이 모두 식량을 잃고 가슴 아파할 때—
쥐 무리들은 뜻하지 않던 알밤 50여 섬에 갖옷과 보물들이 생겼다고 이튿날 아침부터 잔치를 차려 놓고 놀기 시작하였다.
서 대쥐는 기쁨을 이기지 못 하여 손수 표창장을 써서 서 균에게 주며
《오늘 우리 겨레의 큰 경사는 실로 용감하고 지혜 있고 두령을 잘 섬길 줄 아는 아우의 공이로세!》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상으로는 다람이의 석굴에서 가져 온 보물 중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쥐 무리들은 남의 식량과 보물을 훔쳐다 놓고는 이른 아침부터 경축 연회를 베풀고 진탕치듯 먹고 마시며 떠드는 소리는 온 석굴을 떠나 보낼 듯 하였다.

⑭ 한편 다람이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두령인 평 정은 힘써 진정하였다. 잃은 식량을 찾고 오늘 래일 당장 먹을 식량을 벌어 들일 변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였다.
아직 눈이 덮이기 전인 만큼 거의 모든 다람이들을 시켜 벌이를 떠나 보내고 남은 몇몇 다람이만 집에 남아서 잃은 식량을 찾게 하였다.
거의 모든 다람이들은 곪은 배를 껴안고 발가숭이 몸으로 산과 골짜기를 헤매지 않으면 안 되였다.

⑮ 평 정은 집에 남은 다람이들과 의논을 하였다. 한 젊은 다람이가 말을 꺼낸다.
《소토산에 있는 그 강도놈 서 대쥐가 짚이웁니다. 그 놈은 자기 무리를 먼 타지방에까지 널려 놓고 부자' 집과 가난한 집을 가리는 법도 없이 남의 낟알을 훔쳐 오게 하더니… 꼭 그 놈의 짓일 것입니다. 먼저 고을 원님에게 고소하여 옳바른 관결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짚이운다만은…》 평정은 증거 없이 남을 의심하기가 죄스러운 모양이였다.
두령의 말에 한 늙은 다람이가 기다란 자주' 빛 꼬리를 휘돌러 잔등에 갖다 붙이며 말하였다.
《두령님도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도적은 앞으로 잡아야지 뒤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도적을 실지로 보지 못 하고 먼저 고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령리하고 지혜 있는 자를 놈들의 소굴로 보내여 사실을 비밀히 알아 본 뒤에 고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⑯ 늙은이의 말을 듣고 난 평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임자의 말이 옳으이》하고 즉시 젊고 령리한 다람이 하나를 시켜서 서 대쥐의 소굴로 보냈다.
령리한 다람이는 새양쥐처럼 감쪽 같이 변장을 하고 소토산 쥐 무리의 소굴로 갔다.
쥐 무리의 소굴은 돌문인데•굳게 닫겨 있었다. 다람이가 돌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에 새양쥐 하나가 나와 다람이의 아래 우를 훑어 보고는 저희 친구인 줄 알고 의심 없이 열어 준다.
《형, 무슨 일로 밖에 나갔다 와요?》, 《우리에겐 엊저녁에 경사가 나지 않았니? 저 령 넘어 남병산 할아버질 청하러 갔다 온다》
《알밤 날라 온 경사 말이죠, 벌써 잔치를 차리고 다들 놀고 있어요》
《암 그 일이다. 경사라도 큰 경사니까 래일도 또 차릴 모양이더라》
《아니, 형님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새양쥐가 또 빤히 쳐다 보며 묻는다. 아차! 다람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짐짓 천연스럽게 말을 꾸며 댔다.
《남병산 할아버지가 먼 길에 왔다고 치하해 주면서 곶감을 주시더구나, 그걸 실컷 먹었더니 목구멍이 야려서 말을 막 못 하겠다》

⑰ 새양쥐는 그만 령리한 다람이한테 속아 넘어 갔다.
다람이가 문을 닫고 새양쥐를 따라 들어 가는데 안에서는 풍작 소리와 함께 찍찍 짹짹 쥐 무리의 먹고 노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나온다. 다람이는 여기서 모든 것을 알아 낼 수 있었다.
(옳지! 이 놈들의 놀음 소리만 들어도 짐작되지만 요 새양쥐의 말에서 똑똑히 알 수 있다. 우리 알밤을 이놈들이 훔쳐 온 것이 틀림 없으니 더 들어가 보나 마나다)
그래서 새양쥐에게
《아, 내 정신 봐, 답장을 받아 올 걸 곶감 먹느라고 잊었구나, 내 얼른 다시 갔다 오마》하고 바삐 되돌아 나왔다.

⑱ 령리한 그 다람이는 두령 앞에 나아가 들숨 날숨 급히 보고하였다.
《놈들의 소굴 문에 막 들어 서자 벌써부터 먹어 때리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 나왔습니다. 그보다도 새양쥐를 만나 말을 들어 보니 틀림 없습니다》
그는 새양쥐와 주고 받은 이야기를 하나도 빼여 놓지 않고 두령에게 말하였다.
젊은 족속의 보고를 듣고 난 평 정은 머리를 달달 떨면서 격분을 참지 못 해 하였다.
《쥐 무리는 세상 만물에 해독을 주는 간특하고 악착한 놈들이다. 그 놈들이 백성들에게 이처럼 나쁜 짓을 하건만 아직 관가(정치를 하는 곳) 에서는 쳐 없애려 하지 않으니 한심한 일이로다. 이 세상에서는 나쁜 놈과 좋은 이가 잘 드러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아 큰 걱정이구나!》

⑲ 평 정은 드디여 벼루에 붓을 묻혀 원에게 올리는 고소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공명정대하고 명철하신 원님 앞에 저희 겨레의 통분한 사정을 아뢰옵니다.

저희들 다람이들은 천하고 가난한 무리로서 풍년 시절이라도 생활이 곤난하던 터에 이 몇 해 동안은 가물이 심하여 곡식은 두 말할 것 없고 풀과 나무까지 말라 과일을 먹기도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은 남녀 로소 모두가 떨어 나 산'속 깊이 들어 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식량을 벌어다 근근히 살아 왔습니다. 그 동안 금년 같은 큰 흉년을 미리 생각하고 아껴 먹으면서 알밤 50여 섬을 겨우 저축하여 놓았더니 뜻밖에도 소로산 서 대쥐의 무리들이 어제'밤 삼경(새벽 2시)에 저의 석굴에 들어 와 그것을 죄다 훔쳐 갔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갖옷과 보물도 도적질하여 갔습니다. 금년 같은 극심한 흉년에도 엄동설한이 눈 앞에 닥쳐 온 이 때 저희들은 모두 얼어 죽게 되였습니다.

엎디여 비옵건대, 현명하신 원님께서는 저희들의 억울하고 불쌍하게 된 사정을 굽어 보시와 쥐 무리의 두목인 서 대쥐를 잡아다 엄벌에 처하시며 잃은 식량과 물품도 찾아 주소서.》

평 정은 젊은 다람이 하나를 시켜 이 고소장을 고을로 올려 가게 하였다.

19

⑳ 평 정의 고소장은 고을 원의 손에 들어 갔다.

원은 그것을 읽고 나서 《이 고소'장을 보면 서 대쥐가 나쁜 놈인즉 급히 잡아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한 사령(원의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빨리 소토산으로 가서 서 대쥐란 놈을 잡아 오되 그 놈의 꾀임수에 넘어 가지 말고 꽁꽁 묶어 가지고 오너라!》

20

㉑ 사령은 원의 명령을 받고 소토산으로 달렸다.

산'길은 험하여 벼랑을 타고 골짜기를 헤쳐 가는데 가도 가도 서 대쥐의 소굴은 찾아 낼 수가 없었다. 어디 가서 물어 볼 데도 없다.

점점 깊이 들어 가도 인적은 없고 다만 들리는 것은 초겨울 음산한 바람 소리에 섞이여 산'새 소리가 들린다. 이 따금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 호랑이의 재채기 소리, 사슴의 울음 소리가 들려 올 뿐이다.

사령은 몹시 당황해 졌다.

이 때 머리 우에서 웬 날'짐승의 날개치는 푸닥 소리가 났다.

21

(다음 호에 계속)

《손 들엇! 움직이면 쏜다!》

대담한 중대장

—공화국 영웅 김 재경 형님에 대한 이야기—

조국 해방 전쟁이 한창 가열하던 1950년 8월이였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원쑤놈들을 무찌르며 계속 남으로 남으로 용감히 진격해 나가고 있었다.

적들은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이 진격을 가로막아 보려고 경상북도 대구 근방의 군위군 비안 일대에 숱한 병사들과 무기를 배치하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다.

김 재경 형님네 중대에 비안 일대에 있는 미군 1 개 대대와 괴뢰군 련대 지휘부를 습격하며 놈들의 포 진지를 때려 부실 어려운 습격 전투 임무가 내렸다.

12일 저녁, 중대장 김 재경 형님은 《국방군》 장교로 가장하고 17 명의 전투원들을 데리고 적진을 향하여 습격의 길을 떠났다.

적들의 어마어마한 경계망을 뚫고 적후 깊이 들어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형님들이 산마루를 따라 목적지 20 리가량 앞둔 지점에 갔을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누구야, 섯!》하고 겁에 질려 웨치는 소리가 났다. 잠복 초소에 숨어서 보초를 보고 있던 적이였다.

(어렵건다!) 만일 그 놈을 쏙 눕힌다면 이 총'소리에 적들이 몰려 올 것이고 그렇다고 재빨리 골짜기를 따라 피한다고 해도 적들은 그 놈의 신호를 받고 따라 올 것이였다.

(위급할 때일수록 침착하고 대담해야 한다!) 형님의 머리에는 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다, 중대장이다. 습격을 갔다 오는 길이야!》

형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위엄이 있었고 날카로왔다. 형님은 태연한 태도로 그 놈 앞으로 다가 갔다. 어둠 속에서도 형님이 입은 《국방군》 장교복을 알아 차린 적

의 보초병놈은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순간 형님의 손에서 단도 끝이 번쩍이더니 그 놈은 찍소리도 못 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때 다른 놈이 그 곳으로 걸어 왔다. 그 놈은 형님을 보자 총을 쏘며 달아 났다. 형님은 재빨리 권총으로 그 놈을 쏘았다. 총'소리가 산판을 메아리 쳤다. 사태는 뜻밖에도 위급하게 되였다.

형님은 대원들에게 급히 피할 것을 명령했다. 등뒤에서는 적들이 추격해 오는 총'소리가 연방 울리였다.

《앗!》 날아 오는 총알에 대원 한 형님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전우들은 달려 와 저마다 등을 들이댔지만 어느새 중대장 형님이 부상병을 업고 앞서서 달렸다. 험한 벼랑과 비탈'길을 톺으며 단숨에 4 개의 고개를 넘었다. 숨이 하늘에 닿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런데 어쩐지 왼 쪽 팔이 점점 맥이 없어지면서 드리워지는 것이였다. 추격하던 총'소리도 뜸해지고 이제는 안전한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여 부상병을 내려 놓고 팔을 보았다. 뜻밖에도 형님의 왼 쪽 팔에도 적탄이 뚫고 지나 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형님은 사랑하는 전우를 구원하려는 일념에 자기 팔에 상처를 입은 것도 느끼지 못 했던 것이다.

형님은 전우들이 미처 알아 차릴 새 없이 어둠 속에 돌아 서서 내의 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이였다. 그리고는 조금도 부상당한 기색을 내지 않고 한 형님에게 부상병을 후송하게 한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비안 일대의 낮은 고지들이 어슴푸레 내려다 보이는 906.1 고지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산 밑에 올망졸망 들어 앉은 부락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 부락에는 미군놈들과 괴뢰군놈들이 미친개처럼 싸다니면서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는 것이 보이였다.

형님은 우선 적정과 지형을 잘 안 다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님은 이 번에는 다시 《국방군 헌병》으로 가장한 다음 두 명의 전사를 데리고 대낮에 산 밑 부락으로 내려 갔다.

형님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초가집에 들어 갔다. 때마침 그 집에는 두 놈의 괴뢰군 졸개들이 달려 들어 닭을 잡느라고 정신 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물귀신 같은 자식들아,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거야? 한 몽둥이로 때려 죽일놈의 새끼들…》

하고 형님은 괴뢰군 헌병놈들이 하는 본때 대로 그 놈들의 면상을 힘껏 후려 갈겼다. 그리고 형님은 다시 그 놈들에게 어느 부대에 있으며 이제 어디로 가려는가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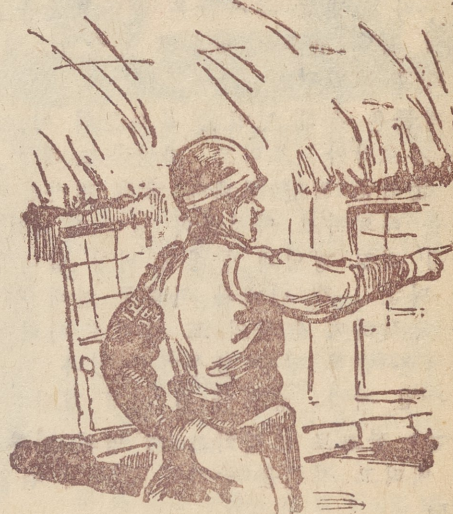
《…대구 동명원으로 이동해 간 련대 지휘부로 가렵니다.》

놈들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대가리를 가슴에 박고 대답하는 것이였다.

형님은 놈들의 대답을 듣고 적 지휘부가 동명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았다. 형님은 그 놈들을 발'길로 차서 쫓아 보낸 후 집 주인으로부터 동명원으로 가는 길과 지형들 그리고 적정들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동무들에게로 돌아 왔다.

그 날 밤 형님은 대원들을 데리고 동명원을 향해 떠났다.

행군은 밤새 진행되였다.

전투원들은 시장'기가 났으나 누구 하나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부대에서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은 벌써 떨어지고 없었다. 길은 가파롭고도 험했다. 그들은 벼랑을 톺아 오르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을 헤치면서 행군 했다.

깊숙한 산'골짜기에 이른 형님은 대원들을 돌아 보고 휴식 구령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항일 빨찌산의 한 소조가 겪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대원들에게 들려 주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대원들의 심장마다에는 새 힘이 용솟음쳤다. 그들은 단참에 험악한 팔공산 마루에까지 올랐다. 팔공산을 넘어 내려 온 형님들은 산'기슭을 따라 동명원으로 접어 들고 있었다. 바로 그 때였다. 미군 장교가 통역원인듯한 괴뢰군 한 놈을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 오고 있었다.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형님은 그 놈 앞으로 바싹 다가 갔다.

《어디로 가는 길이야?》

앞 가슴에 권총을 들이 대고 형님이 다급히 묻는 바람에 그 놈들은 미처 대답하지 못 하고 두 손을 번쩍 쳐든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놈들은 미군 대대와 괴뢰군 련대 지휘부에 련락 가는 길이였다. 형님은 그 놈에게 미군 한 개 대대가 동명원 소학교에서 전선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냈다.

《이 물귀신 같은 자식들아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거냐?》

(우선 양키놈들부터 족쳐야 한다.)

형님은 그 놈을 앞세우고 동명원 소학교 근방에 다달았다.

적 보초병놈이 《누구야, 섯!》 하고 소리쳤다. 괴뢰군놈들이 미군을 위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형님은 《중대장이다!》라고 위엄 있게 대답한 후 아까 미군 장교한테서 알아 낸 군호까지 말했다. 보초놈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차렷 자세를 했다.

《이 놈 보초를 똑똑히 서라!》

형님은 우정 큰 소리로 한 마디 말하고는 보초선을 지나서 학교 마당 가까이로 갔다. 운동장에서 한 개 대대 가량 되는 키다리 양키놈들이 부산스럽게 욱실거리고 있었다.

형님은 재빨리 전투를 조직했다. 우선 한 조는 미군 졸병놈들을 대번에 쓰러 눕히기로 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엄호조를 조직하여 배치했다. 형님은 놈들의 50 메터 앞까지 다가 갔다. 형님의 심장은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탔다.

(이 살인귀들아! 죽어 봐라!)

형님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먼저 미군 장교놈을 쏴 눕혔다. 뒤'이어 밤 공기를 째는 복수의 총'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불의의 봉변을 겪은 놈들은 총 한방 쏘지 못 하고 폭풍에 갈'대 쓰러지듯 무더로 꺼꾸러졌다. 때를 같이하여 놈들의 자동차에서도 거센 불'길이 타올랐다.

형님들은 삽시간에 350여 명의 미군을 쓰러 눕히고 10 대의 자동차를 불살라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통쾌하게 양키들을 족친 형님들은 깜쪽같이 이 곳에서 사라져 산에서 또 하루 낮, 하루'밤을 보냈다.

날이 밝았다. 8월 15일! 오늘이 바로 8.15 해방 5 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형님의 눈앞에는 불현듯 해방 전 눈물겹던 일들이 떠올랐다.

겨울에도 더덕더덕 기운 로스께옷을 입고 허리까지 치는 눈'길을 헤치며 산에 가 나무를 하다가 열 발'가락을 얼구고 울며 돌아 오던 일, 사시장철 사발 밑이 들여다 보이는 멀건 죽물로 끼니를 에우며

살아야 하던 일, 병 들어 누운 어머니께 약 한 첩 못 사다 드려 밤을 울면서 밝히던 슬픈 일들과 함께 해방 후 당과 국가에서 땅을 분여 받아 농사를 지어 해마다 행복하게 살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 갔다.

(그런데 이 행복을 미국놈들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형님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 나 앉았다. 형님의 눈에서는 적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형님은 이 날 아침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살을 바라 보며 대원들에게 형님이 겪은 지난날의 이야기와 함께 해방 후 행복하던 생활에 대하여 이야가해 주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대원들은 이 날 더욱 복수심에 불타며 습격 전투 준비를 갖추었다.

어둠이 깃들자 형님들은 적 지휘부를 향해 떠났다.

맨 앞장에 서서 적 지휘부 보초놈이 서 있는 데까지 이른 형님은 눈 깜박할 사이에 단도로 보초놈을 해치우고 그 곳에 대원 2 명을 세워 놓고는 다시 제 2 보초선으로 다가 갔다.

《섯, 누구얏!》 보초놈이 소리쳤다.

《내다, 중대장이다! 이 놈의 새끼 중대장도 몰라 봐!》 하고 팩 소리를 지르고 형님은 어느 새 그 놈의 가슴에 권총을 들여 댔다.

《소리 치면 없다!》 형님은 보초놈의 카빙총을 빼앗아 들고 대원들에게 그 놈을 묶게 했다.

형님은 또다시 대원들을 몇 명 떨구어 놓고 6 명의 대원들과 함께 적 련대장실로 들어 갔다.

적 련대장놈은 형님들이 다가 가는 것도 모르고 부하들과 함께 무슨 문서'장을 뒤지고 있었다.

《손 들엇! 움직하면 쏜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놈들은 꼼짝 못 하고 모두 묶이였다.

작전 문건을 모두 빼앗아 낸 다음 형님은 그 곳에 있는 적들을 모조리 쏘아 눕히도록 사격 명령을 내렸다. 아닌 밤'중에 불의의 습격을 당한 적 지휘부는 삽시간에 녹아 났다.

형님은 다시 련대장을 앞세우고 적 포진지로 향했다.

적 포진지에 이르러 보니 105 밀리 포들이 예상 외에 많이 배치되여 있었다.

형님들은 이미 준비해 가지고 갔던 수류탄 묶음을 포진지에 집어 넣었다.

《쾅! 쾅!》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적 포진지가 모두 날아 났다.

형님들이 통쾌하게 마지막 전투 임무를 끝내고 돌아 서려 할 때였다. 그 때야 포진지가 녹아 나는 것을 알게 된 적들이 사방에서 집중 공격을 해 왔다. 날쌔게 이 곳을 빠져 나와야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원 한 형님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였다. 형님은 어느 새 달려 가 그를 업고 뛰였다. 대원들이 업고 가재도 막무가내였다. 얼마 쯤 달리는데 그만 이번에는 형님이 또 부상을 입어 부상병을 업은 채 쓰러졌다. 적탄이 어깨를 뚫고 지나 갔던 것이다.

대원들이 달려 왔다.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듯 벌떡 일어 났다.

《나는 일 없소. 저 동무는 다리를 상했소. 저 동무를 도와 주오. 나는 걸을 수 있소.》

형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전우의 목숨을 더욱 귀중히 여겼다.

대원들은 부상당한 중대장과 전사를 업고 날쌔게 이 위험한 고비를 빠져 나왔다.

이리하여 이 날 형님들은 적 련대장을 비롯한 6 명의 포로를 앞세우고 부대에 무사히 돌아 왔다.

부대의 전우들은 이처럼 어려운 전투 임무를 용감하게 끝내고 돌아 온 형님들을 부더 안고 어쩔 바를 몰라 했다.

얼마 후 부대의 진격을 알리는 신호총 소리가 밤 공기를 깨뜨리였다.

군의소에 누워 이 소리를 듣는 형님의 마음은 련대 대오의 선두에서 전우들과 함께 원쑤들을 용감히 무찌르며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여 나아갔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고원 빨찌산의 소년 정찰병이였던 서 강렬은 이렇게 적들이 있는 지붕 우에 공화국 기'발을 꽂았다.

그는 왜 아버지를 따라 떠났을가요?

고향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땅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 낯 선 분이란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형님 그리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낯 익은 그런 분들뿐이였습니다.

미국놈들이 고향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국놈들이 고향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원 서 강렬 동무의 바로 눈앞에서 이 모든 고향의 불행과 고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서운 생활은 강렬이네 집 문턱 가까이에까지도 다가 왔습니다. 원쑤놈들은 강렬이의 아버지를 찾기에 눈을 붉히고 미쳐 날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산에 가 계셨습니다.

1950년 가을, 원쑤놈들의 포성이 고향 마을에 가까와지자 군당 위원장 선생님이랑 함께 많은 로동당원들은 빨찌산을 조직하여 산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였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왔니? 세상을 모르냐?》

《아닙니다. 어머니, 이 밤으로 전 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서 날이 밝기 전에 강렬이를 데리고 외가로 가세요. 꼭 가셔야 합니다.》

강렬이네 집에는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주고 받는 말이였습니다.

《어머니, 로동당을 굳게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구원됩니다. 념려 마십시오.》

이 때 강렬이가 그들의 말에 참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들은 빨찌산이지요?》

《빨찌산?》

《네…적 후방에서 싸우시죠?》

아버지는 조용히 강렬이의 어깨 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싸운다. 너도 로동당원의 아들

답게 소년단원답게 살아야 한다.》

강렴이의 어린 가슴에도 피가 끓었습니다. 강렴이의 눈앞에는 김 일성 장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강렴이는 아동단 동무들의 투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온 몸에서 피가 끓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자기의 끓는 피가 그 투사들의 피를 이은 그런 고귀한 피로 느꼈습니다. 마침내 강렴이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장 곤난한 시기, 조국이 위험 속에 있는 이 시기에 나는 소년단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소년단 생활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던가! 소년단원의 맹세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는가!)

이리하여 이른 새벽, 할머니는 홀로 외가로 가셨고 강렴이는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갔습니다.

빨찌산이 준 위임

빨찌산의 첫 위임을 그는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이 자각은 어린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더 살펴 보게 했습니다. 나의 생활에 비겁한 점은 없는가? 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곤난을 이겨 낼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서 강렴이는 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스스로 짓군 했습니다.

—비겁한 일은 자기 생활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법이다. 비겁한 일은 자기 생활을 사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법이다. 나는 내 생활을 사랑하리라… 강한 마음이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왜 해야 함을 굳게 믿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가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첫 위임을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내리 지방에 주둔한 미군과 괴뢰군 수는 180 명. 둘째, 놈들은 성내 철교 아래에 특별 경계망을 펴고 있다는 것. 세째, 인민들의 적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높다는 것. 그것은 요사이 놈들의 만행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실로 그의 첫 위임의 훌륭한 실행으로서 11월 8일에 진행된 수동 해방 전투에서 빨찌산 용사들은 자기 대렬의 손실을 하나도 봄이 없이 수 많은 적을 살상 포로했으며 보총 60 정과 기타 군수 기재를 다수 로획하였고 수동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임무도 그는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임무는 적구에서 많은 소년단원들을 묶어 세워 투쟁하는 일이였습니다.

강렴이가 앞장에 선 소년 빨찌산의 활동은 개시되였습니다.

그들은 맨 먼저 유격대에서 보내 준 삐라를 거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벽과 전선주, 울바자들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였습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원쑤놈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의 공화국 기'발은 다시 우리들의 머리 우에 휘날린다!
—원쑤놈들의 학교로 등교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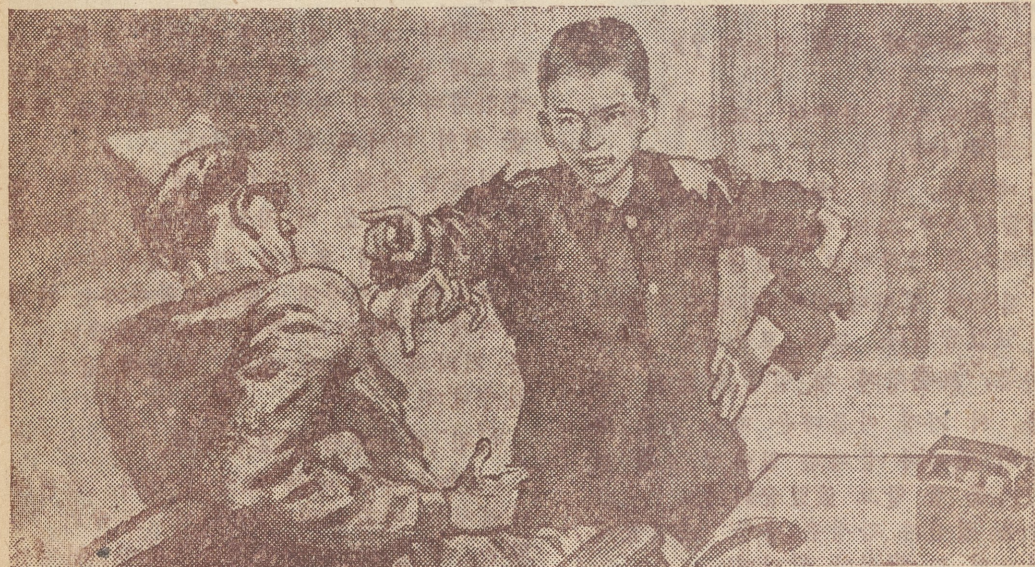
이 삐라들은 인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승리를 굳게 믿게 해 주었습니다.

빨찌산이 강렴이네들에게 맡긴 위임들은 그 후 어김 없이 계속 훌륭히 실행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들은 원쑤들이 씨아이씨 기관으로 사용하는 집 옥상 우에 공화국 기'발을 꽂았습니다. 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적들이 욱실거리는 거리의 중심부 높은 지붕 우에 공화국 기'발을 꽂는 것은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높여 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또 원쑤놈들의 대렬을 흩어지게 하며 사기를 떨구어 주며 발을 펴고 살 수 없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듯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힘과 정신은 어디서 생겨 났겠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규률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활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규률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과 떼여 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규률이란 자기 생활의 매 걸음 매 걸음이며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학습을 꾸준히 잘 했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늘 명심했으며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늘 충실했습니다. 한것은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나날, 학습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자기의 미래를 공상할 수 있고 그 공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감정이 바로 그들에게 그처럼 위대한 힘을 준 것입니다.

이 날 밤, 이들의 용감하고 대담한 투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뛰여 난 품성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과 행동의 연장입니다.

《그렇다! 나는 빨갱이다. 빨갱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소년단 생활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온 거리가 들끓었습니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더 타올랐으며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는 신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띄운 기'발이 아침 해'발을 받아 눈부시게 휘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 보며 참으로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를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인민군 부대의 재진격, 이것은 인민들의 심장 마다에 새로운 위대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코앞에 둔 놈들의 만행은 나날이 더 심해 갔습니다. 놈들은 학교 마당가'에 인민들을 모아 놓고 무리죽음을 주었습니다.

놈들은 아주머니들을 전선주에 벌거 벗겨 매 달아 놓고서는 칼로 찔렀습니다. 소년들은 이 모든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야수들의 만행에 대한 목격자의 복수심은 한 없이 강한 것입니다.

밤'거리에서의 투쟁, 더우기 멸망을 앞둔 원쑤들의 발악이 극심한 거리에서의 투쟁은 결코 순조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서 강렴 동무가 체포되였습니다.

이 날 밤부터 씨아이씨의 양키놈들은 어린 강렴에게 무서운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실 음침한 방 안으로는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살'점이 뜯기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을 벌릴 수도, 두 손을 놀릴 수도, 아니 온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은 추위만이

아니였습니다. 거듭되는 고문으로 그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채찍, 몽둥이, 불인두, 미국놈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린 소년을 고문하였습니다.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 내리였습니다. 어깨의 채찍 자욱은 밭'이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렴이는 련 사흘 거듭되는 고문 앞에서도 빨찌산의 비밀을 지켜 입을 열지 않았고,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고통이 그를 위협하여도 미국놈들 앞에 조선 소년단원의 량심을 팔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빨찌산 본거지는 어느 산이냐?》

《……》

《지하 당 조직이 어디 있는가?》

《……》

그는 침묵으로써 원쑤의 고문에 항거하여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의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동당을 사랑하는 마음, 로동당과 김 일성 장군을 믿는 마음, 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보람 없는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정신과 감정은 응당 소년들에게도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고문의 날이 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오래 동안 입을 굳게 담은 채 말이 없던 강렴이는 그 무엇을 결심한 듯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공화국에 살고 있다!》

《공화국? 공화국이 어디야?》

《제일 높은 산이다!》

《제일 높은 산이 어디야?》

《백두산이다! 백두산의 마음을 지니고 산에 산다!》

《요 빨갱이 새끼…》

《그렇다! 나는 빨갱이다. 빨갱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연설은 집어 치워! 이 놈아! 그래 빨찌산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대면 살려 준다!》

《그건 비밀이다. 너희들의 것을 말해 줄테냐? 건 비밀이 아니냐?》

다시 무서운 고문이 시작되였습니다.

그래도 서 강렴 동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얼음'장 같이 차디찬 땅'바닥에 쓰러진 서 강렴은 눈앞에 많은 것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학교의 동무들, 할머니와 아버지, 빨찌산 아저씨들, 조선 인민군 용사들, 고향의 뎍지강, 강'기슭의 푸른 숲…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아동단원들…

그러나 그는 김 일성 장군의 영상을 오래오래 눈앞에 그려 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마다 힘이 솟았고 피가 끓었고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뎍지강 언덕 우에 두 손을 뒤로 묶이운 서 강렴 소년이 미국놈들의 총'구 앞에 용감히 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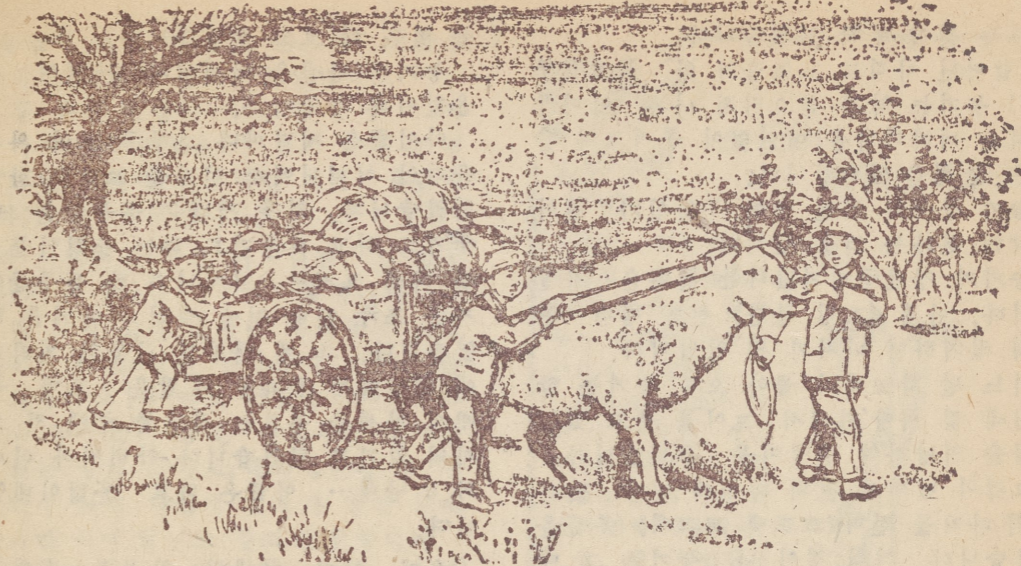
눈보라가 세차게 달려 왔다가는 다시 세차게 달려 가는 추운 아침이였습니다. 온 거리와 산'발과 강판,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애국자는 웨쳤습니다.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칼을 꽂을 수천 수만의 위대한 인민이 있다. 우리의 당이, 우리의 김 일성 장군님이 계신다…》

아, 총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뎍지강 얼'음장 우에 붉은 피가 물들었습니다. 그 우에 쓰러진 강렴이는 거기에 입을 대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속삭이였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나는 소년단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이러한 서 강렴 동무를 두고 누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미래에까지 살 것입니다.

청운마을의 《종달새》들

—평남도 문덕군 룡담 중학교 제 4 분단 (모범 분단) 제 1 반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김 준 규

그림 윤 영자

저녁 차비를 하려고 물'독을 열어 본 배나무'집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비였던 물'독에 물이 넘치듯 찰랑찰랑하지 않겠습니까.

모내기 때여서 무척 바삐 보낸 어머니는 아침에 찬'장이며 가마'목을 미처 돌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보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나…

처음 어머니는 성실이가 벌써 학교에서 돌아 와 해 놓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읍에 있는 고등 기술 학교 기술반에 다니는 성실이는 아직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설겆이까지 다 했어요?》 어머니는 방안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달가닥달가닥 그릇 소리가 나기에 난 네가 온 줄만 알았지.》 하며 할머니는 놀라시였습니다.

올해 일흔 하나이신 할머니는 몸이 편치 않아 방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점점 가까와 왔습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 인민군
정의와 평화 위해 싸우는 전사…

누워 계시던 할머니도 이 노래'소리가 들리자 몸을 일으켜 일어 나 방문을 활 열어 젖히였습니다.

1950년 여름, 성실이의 아버지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눈앞에는 미제 원쑤놈들을 무찔러 고향 마을을 지나면서도 집에 들리지 않고 전선으로 나아간 아들의 장한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자 마자 방금 노래를 부르던 한 소년단원이 걸음을 멈추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4 분단 1 반 반장인 리 농기 동무였습니다.

《오냐, 장난꾸러기 녀석이 인살 다 할 줄 알구.》 하시더니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농기를 달가와 하지 않

는다는 것이 뻔히 알렸습니다.

(할머닌 아직도 노여움이 안 풀리셨구나.) 농기는 약간 돋으라져 나온 이마를 가리운 머리카락을 어이없이 문지르며 숱많은 눈'섭을 깜빡입니다.

농기 동무가 이럴 때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을 압니다.

농기가 장난꾸러기였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직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여 나서기 전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오던 농기는 할머니네 집 마당'가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암탉을 겨냥하여 돌멩이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면바로 닭의 다리에 맞아 닭은 한 쪽 다리를 절며《끄끄댁 끄끄댁》 부산을 떨었습니다. 더럭 겁이 난 농기는 그 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뛨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할머니는 농기를 보기만 하면 《에끼 장난꾸러기 녀석》 하고 눈을 흘기시군 하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러시지만 농기에겐 좋은 데가 있어 아이들이 무척 따릅니다.

그는 우스개소리를 잘 하여 늘 반 동무들을 웃기는 재간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일은 자기가 맡아 제껴 해 치웁니다. 자기보다 어리거나 힘이 약한 동무들의 일은 즐겨 무던해 나서구요.

동무들로부터 반장으로 선거 받은 농기는 무엇인가 다른 반에서 못 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농기네 반실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윤형이네 집입니다.

아이들은 저녁마다 오구구 모여 와서는 윤형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은 동무들을 배워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윤형이를 한참 바라 보시던 어머니가 반 동무들에게 지난 조국 해방 전쟁 때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그 때 해방된 서울의 거리거리에 휘날리는 공화국 기'발을 보며 목이 메게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한 로동자의 일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6 남매… 이들은 바로 윤형이네였답니다.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시기 뒤늦게 후퇴의 길을 떠난 윤형이네는 그만 원쑤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원쑤놈들은 아버지의 손톱, 발톱까지 다 뽑고 모진 고문을 들여 대였습니다. 원쑤놈들은 서울시 인민 위원회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의 비밀을 대라고 어머니에게마저 갖은 고문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악에 바친 놈들은 아이들을 거리에 내쫓고 아버지를 학살한 다음 어머니에게 더욱 검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이 때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과 함께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 든 원쑤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며 남으로 남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또다시 해방되였습니다. 《성북 경찰서》에서 나온 어머니는 거리의 한 곳에서 포연에 끄슬리고 총탄에 찢기운 군복 차림의 한 인민 군대 아저씨의 품에 안겨 있는 윤형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부모 없이 거리를 헤매며 다니는 윤형이네 형제들을 데려다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내였습니다. 맏형은 그 길로 원쑤놈들에 대한 불 같은 증오의 마음을 안고 인민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 후 동부 전선의 어느 한 무명 고지에서 미제 원쑤놈들을 수 없이 무찌른 형님은 그만 적탄에 맞았지만 계속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어머니는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시다가 그 맞은 편 벽에 걸린 윤형이 형제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렇던 아이들이 오늘은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농기와 그의 동무들은 김대 철학부의 선생님으로 있는 둘째 형님도, 대학생들인 두 누나와 해주 혁명 학원에 있다가 인민 군대에 입대한 세째 형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눈앞에는 오늘의 행복을 지켜 피흘려 싸운 인민 군대 아저씨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농기에게는 가슴으로 화구를 막는 박 원진, 리 수복 영웅 형님들이며, 량 팔을 잃고도 마지막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으로 굴러 내려 가는 강 호영 영웅 아저씨의 용감한 모습들이며, 그리고 오늘은 눈보라치는 방선에서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인민 군대 형님들의 씩씩한 모습이 선히 떠올랐습니다.

(옳다, 원쑤와 싸워 이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인민 군대 나간 형님들의 집'일을 돕자.)

그 날 밤 농기는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농기네 반 동무들은 인민 군대에 나간 집'일들을 도와 오는데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참, 그 땐 아무 쓸 데 없는 장난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며 농기는 윤형 동무네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성큼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하하…》 반 동무들은 웬 일인지 농기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기는 무심결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농기는 동무들이 왜 웃어 대는가를 알았습니다. 그의 코밑에는 무연탄 가루가 시꺼멓게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기는 두 오빠가 인민 군대에 나가 있는 란실이네 집 부엌을 깨끗이 거두어 주고 오는 참이였습니다.

《그전 그렇구 다들 왔니?》

농기는 손'수건을 꺼내여 코밑을 쑥 문지르며 반 동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때 마침 금실이가 왔습니다. 그는 무슨 기쁜 일이 생겼는지 방글방글 웃더니 《애들아, 〈찬우물'집〉 명선 오빠에게서 집에 편지가 왔는데 부대장 표창을 탔대.》 하고 알렸습니다.

《야, 그거 참 멋진 소식인데.》 아이들은 모두 자기네가 상을 탄 것처럼 좋아하였습니다.

《원, 내 정신 봐라, 하마터면 잊을 번했구나. 옜다, 너희들에게 온 편지다.》

윤형이 어머니가 이러시며 편지를 쑥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명선 형님에게서 반 동무들에게 보내 온 회답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막 환성을 울리며 편지 겉봉을 뜯었습니다. 시 랑송을 잘 하는 금실이가 고운 눈갓을 내리 깔며 감정을 잡더니 소리 높이 읽었습니다.

형님의 편지 내용에서 아이들을 제일 기쁘게 한 것은 반 동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새 힘이 솟는 것만 같다고 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어쩌 명선 형님

이것을 아십니까?

소금이 열리는 나무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 경계선에는 《목염수》라고 불리우는 신기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7 m나 되는 이 나무는 매년 여름이 되면 줄기의 표면으로 재'하얀 소금이 돋아 나옵니다.

이 곳 주민들은 손칼로 이 소금을 긁어 조미료로 쓰고 있는데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반동무들과 편지를 주고 받는 리 광선 형님도, 백 치복 형님도, 명선 형님과 꼭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형님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갖가지 고운 꽃씨도 보내였습니다.

방선에 핀 이 꽃을 볼 때마다 형님들은 꽃처럼 아름답게 피여 나는 고향 마을과 동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는듯 하답니다.

농기네 반 동무들은 날마다 종달새들처럼 새벽 일찌기 일어 나 노래 부르며 온 마을을 깨끗이 쓸고는 이 형님들의 집들을 찾아 봄이면 뜨락에 꽃밭도 만들어 주고 여름이면 터밭의 김도 매 드립니다. 두 동무씩 조를 나누어 집 안팎도 날마다 거두어 드리지요.

그러니 일터에서 돌아 오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협동 농장 넓은 벌에서 마음 즐거이 일하고 들어 오면 장판을 깨끗이 해 놓았지, 아침에 퇴비를 이고 가자고 보면 밤새 없어져서 그냥 나가면 벌써 논'벌에 뿌려져 있지… 어머니들은 이 기특한 일을 소년단원들이 한다는 것만은 알았지만 어느 애들인지는 딱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아이들을 만나 물어 보면 《전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하군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겐 오히려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들은 다만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라는 것만 알아 주신다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겨울에도 여간만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날밤은 휘영청 달이 밝았습니다. 선전실에서 농장원들의 목소리가 들려 올 뿐 마을은 고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영치기영치기 달구지를 밀고 협동 농장 정미소 앞을 지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문빈아, 목소릴 낮춰.》 농기의 목소리입니다. 이 날 저녁 《배나무'집》 어머니는 정미소에 찧을 벼'가마니들을 맡겨 두고 협동 농장 회의에 가셨습니다.

언제나 새 소식은 제가 먼저 안다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금실이가 이것을 알아 내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지금 다 찧은 쌀을 싣고 《배나무'집》으로 갑니다.

집 마당에 이른 반동무들은 개미들처럼 힘을 모아 쌀가마니를 들어 토방 우에 올려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쌀가마니를 방금 들고 걸음을 뗐을 때였습니다.

《누구냐?》 하는 소리가 마주 들려 왔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못할 일이나 저지른 때처럼 흠칠 놀라며 쌀가마니를 툴렁 떨구었습니다.

《아야야!》 그 바람에 덤비기 잘 하는 문빈이가 발을 치웠습니다. 쌀가마니를 다시 들어 올려 놓고 보니 그 때에야 안 성실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 오면서 소리친 것이였습니다. 문빈이가 바쁜 소리를 지르는 통에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깜쪽같이 해 드리고 가려는 일이 그만 이렇게 되였습니다. 아이들은 미처 어떻게 할 사이도 없고 해서 주춤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스러운 눈'길로 쌀가마니와 농기를 번갈아 봅니다. 《날마다 물을 길어다 놓은 것도 너희들이였구나!》 모든 것을 다 알아 차린 성실 누나는 감동어린 눈'길로 반 동무들의 앞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를 바라 봅니다.

《입이 붙었나, 왜 멍하니 서구들만 있냐, 추운데 얘들아 들어들 가자!》 할머니가 농기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우린 이제 가서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린 춥지 않아요. 어서 들어 가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농기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걸 난 그저 장난꾸러기로만 여겼구나! 원 녀석들두…》 할머니는 농기의 등을 쓸어 주실뿐 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반 동무들이 이 집 대문을 나섰을 때 밤하늘에 뜬 별들이 깜박깜박 웃으며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가! 어른들은 우리들을 마을의 《종달새》라고 불러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가 오늘은 비록 인민 군대에 나가신 형님들의 집'일을 돕지만 우리들도 머지않아 자동총을 틀어 쥐고 조국의 방선을 지킬테다. 원쑤놈들이 덤벼 들테면 덤벼 들어 보라지 어림도 없다.)

농기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동무들과 함께 반실로 향하였습니다.

—평북도 동림군 인산 중학교 제 3 분단 (모범 분단)
위원장 김 경숙 동무에 대한 이야기—

1962년 10월 어느 날 아침이였다.

분단 벽보판에는 《최우등 반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크게 달고 1 반 동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은 벽보 특간호가 새로 나붙었다.

여기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반실》, 《나란이 선 5 점 7 형제》, 《교마 주인들》 등을 내용으로 한 1 반 동무들의 반 생활 경험이 씌여져 있었다.

이 날 아침 등교하는 분단 동무들은 교실에 들어 서자 책가방을 벗을 생각도 잊은 채 벽보판 앞으로 달려 갔다. 그들은 붉은 글'자로 크게 쓴 《최우등 반의 자랑》과 《나란이 선 5 점 7 형제》 밑에 5 자와 일곱 동무들이 손목을 서로 잡고 반실에서 자랑스럽게 뛰여 나오는 그림들을 보며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다.

사실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기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1 반은 분단에서 그리 이름난 반이 못 되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분단에서 제일 먼저 모범반이 되고 오늘은 이처럼 벽보에까지 크게 나게 되였을가?
거기에는 이 반을 맡아 도와 준 분단 위원장 김 경숙 동무의 아름다운 지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 ×

경숙이는 분단 위원회에서 자진하여 1 반을 맡았지만 처음에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미 《모범 분단》을 쟁취한 분단들의 경험을 본받기 위해 《소년 신문》과 《소년단》 잡지를 다시 한 번 뒤져 보았다. 거기에는 좋은 경험들이 많았다.

그는 생각던 끝에 자기도 우선 한 달 동안 1 반 동무들과 반 생활을 같이 해 보기로 결심했다. 매개 동무들의 취미와 소질을 알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맞게 도와 주리라는 마음에서였다.

이튿날부터 경숙이는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매일처럼 고개 너머에 있는 1 반 동무들의 반실로 찾아 갔다. 고개 마루에 올라 서서 저 멀리 1 반 동무들의 반실이 바라 보일 때면 그는(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속히 1 반 동무들을 100% 최우등으로 끌어 올려 분단에서 제일 먼저 모범반으로 만들리라.)고 마음 속으로 다지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마른 날, 궂은 날을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 없이 이들을 찾아 갔다.

처음에 그들의 반실에 가 보니 꾸려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소년단원의 의무와 일과표도 써 붙여 주고 위모단정에 대한 그림과 사진도 오려 붙이고 거울도 마련해다 걸어 주었다. 반실이 아담하게 꾸려지니 동무들도 신이 났다.

동무들은 매일처럼 학교에서 돌아 오면 자진해서 반실에 왔다.

숙제 공부도 하고 재미 있는 옛'이야기 모임도 가졌다. 그런데 숙제 공부를 할 때면 책상에 둘러 앉아 답을 맞추어 보고 틀린 동무는 잘 하는 동무의 숙제를 베끼기만 하는 것이였다.

어떻게 더 실'속 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가? 하고 생각하던 끝에 경숙이는 흑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흑판만 있으면 서로 문제를 나가 풀어 보기도 하고 자기가 한 것을 설명해 보기도 하

면서 더 실'속 있게 공부할 수 있겠기 때문이였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이런 생각을 하였다. 분단 위원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방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경숙이는 김 두석 동무를 찾아 갔다. 두석이 아버지가 목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두석아! 1 반에 나가 보니 흑판이 없더구나, 나와 함께 좀 그 애들을 도와 주질 않겠니.》

경숙이의 마음을 알아 차린듯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 멋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자!》

두석이도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자기 힘껏 노력하는 좋은 동무였다.

이 날 저녁 경숙이는 집에서 널판자를 가지고 두석이네 집으로 찾아 갔다.

두석이 아버지는 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시면서 아주 멋지게 꼬마 흑판을 만들어 주셨다.

경숙이는 막 날듯이 기뻤다. 그는 깡충 깡충 뛰다 싶이 달려 갔다.

《이건 분단 위원회가 1 반 반실에 주는 선물이야.》

동무들은 환성을 올리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은 분단 위원장이 자기들을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꼈던 것이다.

(기어이 모범 반이 되자.)

반 동무들에게서는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반실을 더 아담하게 꾸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과 액틀, 꽃병까지 가져 왔다.

반실은 몰라 보게 달라졌다. 게다가 동무들은 교과서와 학습장도 모두 새 뚜껑을 해 씌웠다. 옷차림에서도 모범이 되기 위해 힘썼다. 넥타이도 빳빳이 대려 매고 치마'주름도 날마다 곱게 잡아 입고 다니게 되였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고 복습도 하였다.

그들의 열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그들은 밤 늦도록 그 날 배운 산수 숙제를 풀고 있었다.

산수 응용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던 리 동무는 한참 멍청해 서 있더니 픽 집어 치우고 문학 책을 펼쳐 놓는 것이였다.

《애야, 너 왜 그러니?》

옆에서 공부하던 경숙이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암만 해도 모르겠는걸 끼고 있으면 뭘하니. 차라리 다른 공부부터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지 뭐, 시간이 없으면 너희들 것 좀 베끼자꾸나.》

사실 리 동무는 공부를 못 하는 축도 아닌데 시험 때는 겨우 3 점을 맞는 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경숙이는 리 동무의 학습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리 동무, 지금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고 모범 반을 만들자고 하는데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내버리면 어떻게 되니, 너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쩔랜.》

경숙이가 하는 말에 리 동무도 말문이 막혀 다시 산수책을 펼쳐 놓았다.

경숙이는 자기가 하던 숙제 학습장을 접어 놓고 그와 함께 그 날 산수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풀어 보던 문제를 되풀이 하면서 같이 풀어 보았다. 다음에 숙제 문제를 여러 번 읽게 하였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내게 한 다음 혼자서 풀어 보게 하였다.

반 동무들이 숙제를 끝마친 다음 리 동무가 푼 산수 숙제를 흑판에 풀게 하고 다른 동무들은 자기가 푼 것과 틀린 점을 찾아 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 날도 배운 문제를 모두가 알도록 하였다.

이튿날 산수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어제 내준 숙제 문제를 칠판에 나와서 풀어 봅시다.》 하시더니 마침 리 동무를 지명하시는 것이였다.

그는 크게 《옛》하고 대답하더니 교과서만 척 들고 앞으로 나갔다. 자신이 있였던 것이다. 리 동무는 칠판에 거침 없이 척척 풀어 놓더니 설명까지 훌륭하게 하고 들어 와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은 리 동무가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하셨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리 동무를 보며 경숙이도 마음이 얼마나 기뻤지 몰랐다.

이 날 반실로 돌아 온 1 반 동무들은 산수 시간에 있은 자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였다.

《어제'밤에 경숙이가 도와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망신할 번 했지?》 하고 반장 봉녀 동무가 말을 슬쩍 꺼냈다. 리 동무는 기쁘면서도 한편 부끄러웠다.

《정말이야. 이제는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알고 넘어 가야겠어.》 하고 고맙다는듯이 경숙 동무를 바라 보는 것이였다. 경숙이의 마음도 몹시 기뻤다. 경숙이는 그 후에도 배운 지식을 굳게 하기 위하여 실험 기구, 실물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도와 주기도 하였다.

마찰에 대해서 배운 날 그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측력계를 만들어 가지고 반실로 왔다. 그가 만든 측력계는 6 면체인데 좁고 넓은 면, 대패로 반듯하게 민 면과 터실터실한 면이 있고 용수철과 용수철이 늘어 나는 것을 재는 눈'금이 달려 있었다.

경숙이는 이 측력계를 책상 우에 놓고 잡아 당기면서 용수철이 늘어 나는 것을 잘 살피라고 하였다. 그리고 용수철이 많이 늘어 나는 것은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거라고 하였다. 이 원리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동무들이 아는 대로 이야기하게 했다.

이렇게 학습을 도와 주는 경숙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반 동무들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매 과목을 하나씩 맡기고 그 과목에 대해서는 반실에 와서는 선생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듯 경숙 동무의 꾸준한 노력과 아름다운 마음은 열매를 맺고야 말았다.

그 후 학기 말 시험에서 동무들은 모두 최우등생의 대렬에 들어 섰다.

이것은 3 분단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였다.

1 반의 학습 경험은 곧 전체 분단에 퍼지고 그 뒤를 따라 잡기 위한 노력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 나기 시작하였다.

두 달이 지나자 2, 4 반이 모두 최우등생의 모범반이 되였고 그 뒤를 이어 6 반이 어깨 나란이 모범반 대렬에 들어 섰다.

《한 점의 불꽃》은 타 번지여 마침내 10 개 반이 모두 우등, 최우등 대렬에 들어서게 했고 지난 10월 8일에는 분단이 《모범 분단》 기'발을 수여 받게 되였던 것이다.

지금 그들은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최우등생으로 될 것을 결의하고 《2 중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하려고 힘쓰고 있다.

(본사 기자)

학습 문제 풀이

소년단원 동무들!

편집부는 우등, 최우등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학습 문제 풀이》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이름 있는 과학자, 작가 그리고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국어, 문학, 산수, 대수, 물리, 화학, 기하, 력사, 지리, 생물 등 각 과목에 걸쳐 동무들의 학습을 도와 줄 것입니다.

편집부는 동무들이 이 란을 잘 리용하여 학습에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랍니다.

학습 문제 1

국어 (인민, 초중)

동무들이 사는 지방의 사투리를 10 개 이상 모으고 그 말들을 표준어로 고쳐 보십시오.

례를 들면

지방명	사투리	표준어
평 북	댕가지	고추
평 북	팡이	파
함 북	자부럼	잠

학습 문제 2

산수(초중 1학년)

① 삼각형에는 어떤 분류들이 있으며 그 명칭을 대십시오.

②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과 그 공식이 작성된 근거를 말해 보십시오.

학습 문제 3

문학(초중 1 학년)

…봉운이는 금시 사라져 버리려는 저녁 노을을 아까운듯이 바라 보며 자기도 모르게 히죽이 웃었다. 그러면서도 어서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닥쳐 올 때만 고대했다.

성호와 같이 철산리 부두'가를 오르내리는 미국 병정놈들을 주의 깊게 바라 보던 봉운이는 성호에게 다가 앉으면서 시뻘겋게 타 오르는 노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성호야, 저 노을 좀 봐라.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지 않나?》

《참, 그럴듯 한데.》

역시 날이 빨리 어둡기를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봉운에게 대꾸했다. …

우의 문장을 읽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① 우의 문장에서 노을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였다고 생각합니까?

② 어떤 비유법이 어느 부문에 씌여졌습니까?

③ 다음 단어들의 표현은 어디가 다릅니까?

아까운듯이—아쉬운듯이

가리키다—가르치다

활활—훨훨

초조한—불안한

대꾸—대답

학습 문제 4

력사 (초중 2 학년)

신미년(1811년) 12월 18일 구름 같이 모인 농민군 앞에 나선 그는 단상에 올랐다.

《백성의 행복과 나라의 륭성을 위하여 우리는 간악한 량반의 무리를 무찌르고 백성의 나라를 세웁시다.》

그의 웨침에 농민군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남군은 우 군측이 인솔하고 북군은 김 사용이 지도하였다.

기'발을 추켜 든 농민군은 가산과 곽산으로 들끓는 진격을 개시하였다.

우의 문장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① 그는 누구이며 그가 지도한 농민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까?

② 그가 지도한 농민 폭동은 어떤 의의를 가집니까?

(《학습 문제 풀이》해답)

학습 문제 2

①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따라 직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으로 나누며, 삼각형의 변의 크기에 따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부등변 삼각형으로 나눈다.

② 공식 $S=\frac{a\cdot h}{2}$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면적의 절반과 같다. 그런데 직각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와의 적이므로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과 높이와의 적의 $\frac{1}{2}$과 같다.

학습 문제 3

① 붉은 노을처럼 붉게 타 번지는 이들의 투쟁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보여 주기 위해 씌여졌다

② 직유법

《성호야, 저 노을을 좀 봐라. 활활 타 오르는 불'기둥 같지 않나?》즉 노을을 불'기둥에 비유하고 있다.

③ 아까운듯이—어떤 소중한 것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여 섭섭한 느낌이 있었을 때 쓴다.

아쉬운듯이—꼭 있어야 할 사람이나 물건이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쓴다.

가리키다—일정한 방향이나 대상에 대하여 어느 쪽, 어느 것인가, 무엇인가 등을 집어서 말하거나 보여 알릴 때 쓴다.

가르치다—지식이나 기술 기능 또는 리치나 도리 등을 알려 주어 자기 것으로 하여 가지게 하거나 깨닫게 할 때 쓴다.

활활—날'짐승 등이 가볍게 날개를 치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모양.

거침 없이 시원스럽게 벗어 버리거나 벗기는 모양을 표현할 때 쓴다.

훨훨—활활과 같이 쓰이지만 활활 보다는 약간 느린 느낌을 줄 때 쓴다.

대꾸—남의 말에 반항하는 태도로 말함.

대답—부름, 물음, 시킴 등에 응하는 말

초조한—몹시 급하게 여기며 애타할 때 쓰인다.

불안한—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쓴다.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5

기하 (초중 3 학년)

우리들은 기하에서 문제를 풀 때 보통 자와 콤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콤파스가 없이도 작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콤파스 없이 다음의 문제를 작도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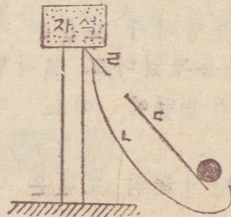
〔문제〕

콤파스를 쓰지 않고 주어진 반원주 밖에 있는 어떠한 점 A에서 원의 직경에 수직선을 내리시오.

학습 문제 6

물리 (초중 3 학년)

영남이는 물리에서 배운 관성 법칙을 리용하여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영구히 운동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계》란 그림과 같습니다.

쇠로 만든 자그마한 공을 ㄹ에서 굴리면 공은 미끄럼'대 ㄴ을 통해 굴러 내려 갑니다. 공은 다시 구는 힘에 의하여 판 ㄷ에 올라 오게 되며 계속해서 자석의 힘에 끌리여 도로 ㄹ에까지 올라 가게 됩니다. ㄹ까지 온 공은 다시 미끄럼'대 ㄴ으로 굴러 내려 가게 됩니다.

이처럼 공은 한 번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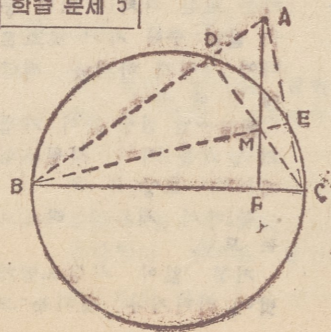
동무들은 영남이가 만든 이 《기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습 문제 풀이》해답)

학습 문제 4

① 홍 경래.
봉건 정부를 때려 눕히려고 일어난 농민 폭동.

② 실패하였으나 봉건 통치배들의 썩어 빠진 정치를 세상에 들추어 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심을 더욱 북돋아 줌.
지배 계급의 밑뿌리를 흔들어 놓았고 무너져 가는 봉건 제도의 멸망을 촉진시켰다.

학습 문제 5

삼각형의 세 변의 높이는 한 점에서 교차된다.

학습 문제 6

자석이 쇠공을 잡아 끌어 당기는 힘 만큼 공은 미끄럼'대로 굴러 내려 오지 못 한다.

인력이란 무엇인가?

리 한 갑

학교에서 공부가 끝난 뒤였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순길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힘 있게 찬 공이 왜 도로 땅에 떨어질가?)

순길이는 옆에 있는 철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고개만 기웃거릴 뿐 이렇다 할 대답을 못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걸 선생님에게 가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재미 있는 문제를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체 (공) 가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모든 물체(공)를 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 물체(공)도 지구를 동시에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물체는 지구에 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지구 상의 물체 호상 간, 지구와 물체간, 지구와 태양, 달 간에도 작용합니다.

례를 들면 가을철에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잎, 비'방울, 던진 돌이 땅에 떨어지는 것, 동무들이 야영소에서 미역을 감을 때 높은 데서 물에 떨어 지는 것은 모두 지구가 인력으로 끌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손에 쥐고 있노라면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 팔이 저려 나는데 그것은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 당기는 중력을 우리가 이겨 내기 때문입니다. (인력중에서도 물체가 지구 중심에 끌리우는 힘만을 따로 중력이라고 한다.)

그럼 지구가 물체들을 잡아 당기는 중력은 얼마나 큰 것일가요?

동무들이 책가방을 들고 있을 때와 물이 가득 담긴 바께쯔를 들고 있을 때 어느 편이 더 무겁습니까? 그것은 바께쯔일 것입니다. 바께쯔가 지구에 더 큰 중력으로 끌리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무겁다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과 같습니다.

만일 순길 동무의 무게가 36 Kg중이라면 그것은 곧 그 동무가 지구에 끌리우는 중력이 36 Kg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현상은 지구의 여러 곳에 따라 물체의 무게가 똑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물체의 무게는 적도에서 량극으로 감에 따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리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첫째로 지구가 타원형(닭알 모양) 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에서 적도까지의 반경은 지구의 중심에서 량 극까지의 반경에 비해 긴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물체라도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있을수록 무게가 작아지며(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리

가 가까울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와 인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적도에서보다 극에서는 물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구의 자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도는 운동(원운동)을 하게 되면 원심력(물체가 도는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심력은 축 주위에서는 생가지 않고 (만약 생긴다 하여도 무시할 정도로 작게 생긴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큰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을 그림과 같이 축에 꽂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무 공의 ㄱ 점, ㄴ 점에 물'방울을 떨구고 나무 공을 회전시켜 보십시오. ㄴ 점에 있는 물'방울은 그냥 있으나 ㄴ점에 있는 물'방울은 나무공이 돌아 가는 방향으로 뛰여 나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할 때 축으로 되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원심력이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적도에서는 원심력이 생기는 힘 만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을 덜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는 반대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때 적도에서의 무게는 극에서의 무게에 비하여 290 분의 1 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곳곳마다 무게가 차이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 혼돈을 가져 오지 않을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배워서 아는 바와 같이 무게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중력을 말하고 질량이란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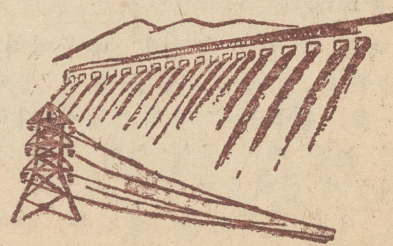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알려면 저울에 달아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가 쓰는 저울 추는 국제적으로 제정된 도량형기 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꼭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어느 지방에 가서 달든지 지구의 중력은 저울 추와 물체에 꼭 같은 크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울 추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아무리 변하여도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혼란도 생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에는 이런 인력과 중력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리용되는가를 알아 봅시다.

동무들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일쿠는지 아십니까? 수풍 발전소에서는 압록강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쿤답니다. 즉 이 때에 물은 지구의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떨어지고 그 힘에 의해 발전기가 돌아 갑니다. 그러므로 전기는 중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장에서 돌아 가는 전동기도, 전기 기관차도, 우리가 밝은 전등'불을 보게 되는 것도 모두 중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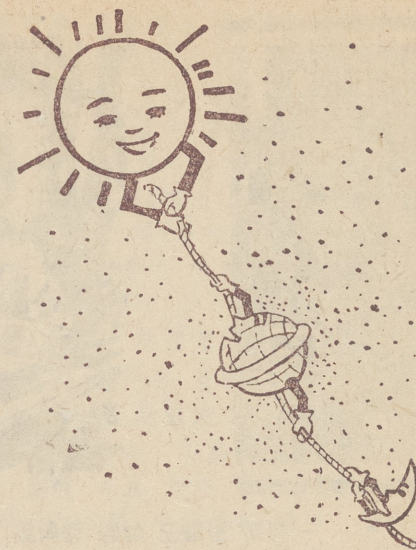
동무들은 철공장에서 시'벌겋게 단 쇠'덩어리를 큰 함마가 떨어지는 힘으로 두드리는 것이라든가 또는 큰 기둥 등을 마치로 쳐서 박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중력을 리용한 것입니다.

어떤 동무들은 만일 우리가 우주 로케트를 타고 달에 간다면 어떻게 될가? 인력을 받을가 하고 생각할른지 모릅니다. 물론 달도 지구와 같이 그 우에 있는 물체들을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 끌어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법칙은 우리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달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서도 작용합니다. 중력으로 끌어 당기는데 달이 지구보다 적기 때문에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6 배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체라도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보다 6 배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영희 동무가 로케트를 타고 달에 갔다면 무게는 36 Kg 중이 아니라 6 Kg중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희 동무가 지구에서 30 Kg중의 짐을 들 수 있었다면 달에서는 30 Kg중×6=180 Kg중의 짐을 들 수 있고 지구에서 넓이 뛰기 3 m를 뛴다면 달에서는 18 m를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는 큰 중력으로 물체들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공기의 두꺼운 층이 지구 주위에 있지만 달에서는 중력이 적기 때문에 공기들이 우주로 달아 나서 공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가 있게 되는 것도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인력은 지구와 그 우에 있는 물체 사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와 달은 인력으로서 서로 끌어 당기고 지구와 태양도 인력으로 서로 끌어 당깁니다. 이 때문에 지구와 달, 태양은 항상 자기 궤도로 돌아 가면서 딴 데로 벗어져 나가지 못 하는 것입니다.

서해와 대동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소년단원 동무들은 왜 하루 두 차례씩 바다'물과 대동강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할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만조 (밀물)와 간조 (썰물) 또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조, 간조가 생기는 원인은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때문입니다. 달이 자기 인력으로서 지구에 있는 바다'물을

끌어 당깁니다. 이 때 바다'물은 달에 끌리우면서 달 쪽으로 흘러 가는데 물이 흘러 간 장소에서는 물이 불어서 만조가 생기고 반대 쪽에서는 간조가 생기게 됩니다.

끝으로 만일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가 하는 흥미 있는 문제를 하나 더 이야기하렵니다. 중력이 없다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 당기는 중력이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매개 물체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없는 곳을 무중력 상태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케트를 타고 달이나 다른 곳으로 우주 려행을 할 때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때 로케트 내부에서 무중력 상태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릇에 물이라든가 기타 음식도 담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들이 무게가 없으므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한 손으로 받쳐 들 수 있답니다.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는 발로 약간 밀쳐도 높이 뛰여 오를 수 있답니다. 지금 학자들은 앞으로 우주 려행을 할 때 로케트 안에서 무중력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황북 신평군 생양 중학교 축산 연구 소조원들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연 일덕

이 학교를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축산 연구 소조원들의 부지런한 일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올해에는 더 많은 가축을 기르려고 겨울철에도 어미 가축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 비탈에 싸리 바자로 빙 둘러 쳐진 아늑한 《꼬마 목장》에서는 토끼, 오리, 닭, 거위, 염소 등 살 진 어미 가축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료 창고에는 겨울 먹이 사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뜯어다 말리운 칡순, 싸리순, 능쟁이, 아카시아'잎, 고구마 넌출 등 건초물과 개구리 말린 것 기타 광물질 사료들이 그득 차 있었습니다.

《꼬마 목장》 책임자 덕기 동무는 우리에게 자기들의 자랑찬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였습니다.

한 쌍의 토끼와 오리로부터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을 잘 해 나갈 것을 의논한 단 총회가 있은 지난 해 4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꼬마 목장》에는 밤 사이에 한 쌍의 앙고라종 어미 토끼와 북경종 오리가 생겨 난 것이 아니겠어요.

소조원들은 모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좋은 일의 주인공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튿날까지 계속 내리였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나온 소조원들은 토끼우리에 비가 새지나 않나 해서 저저마다 비옷을 쓰고 《꼬마 목장》으로 뛰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 일이겠어요. 앙고라종 어미 토끼우리 우에는 두 개의 비옷이 씌워져 있질 않겠어요. 뜻하지 않은 일에 또 소조원들은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 비옷은 늘 보던 덕규와 청곤이의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 때에야 소조원들은 좋은 일의 주인공이 덕규와 청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덕규와 청곤이는 학교에 있는 친칠라종 토끼보다 앙고라종 토끼를 기르면 토끼털 모자와 토끼털 외투를 해 입자고 한 단 총회의 결정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기르던 토끼와 오리를 한 쌍씩 둘러 메고 20리'길이나 되는 멀미 목장엘 찾아 갔습니다.

밤'중에 찾아 간 그들의 지성에 감동된 목장 아저씨들은 제일 좋은 앙고라종 토끼와 북경종 오리를 바꾸어 주면서 기르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한 쌍의 토끼와 오리에서는 많은 새끼들이 늘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규와 청곤이의 열성에 감동된 소조원들과 학교의 모든 동무들은 서로 힘을 합쳐 가축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3천여 마리의 토끼를 길러 단 총회 결정 대로 토끼털 모자와 토끼털 외투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한 쌍의 오리에서도 600여 마리의 새끼를 내서 협동 농장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종자용 가축으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실험과 실습으로

소조원들은 협동 농장 축산 기사 아저씨의 방조를 받으면서 가축 기르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실지 실습을 통해서 쓸모 있는 지식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생리를 알기 위해 해부도 해 보고 가축들의 성장과 특성을 기록한 일지를 놓고 늘 토론도 한답니다.

실험과 실습에서 얻어진 이들의 자랑찬 이야기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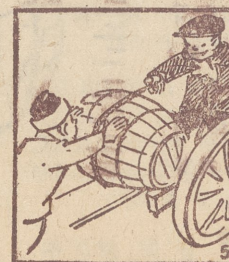
지난 여름 방학 간에 있은 일이랍니다. 소조원들 중 많은 동무들은 야영과 행군을 떠나고 학교에는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덕규와 청곤이, 덕기, 화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토끼 몇 마리가 콕시디움에 걸려 앓게 되였습니다. 협동 농장 축산 기사 아저씨도 회의에 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에 걸린 토끼가 늘어 갔습니다. 소조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토끼풀을 뜯으러 왔던 농장 축산반 누나들이 학교 토끼 구경을 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아무 말도 없이 달려 가더니 파와 마늘을 뜯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짓찧겨 먹이면 낫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파와 마늘을 짓찧겨 병에 걸린 토끼들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토끼들은 몇 시간 안 가서 벌써 눈알이 또렷또렷 해지고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날 축산반 누나들은 고삼피 뿌리를 사료에 조금씩 섞어 먹이면 토끼들이 콕시디움에 잘 걸리지 안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조원들은 늘 학교 뒤'산에 올라 가 고삼피 뿌리를 캐다가 잘게 썰어서 사료에 조금씩 섞어 먹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콕시디움이란 병은 영영 없어지고 말았지요. 소조원들은 새끼 밴 어미 토끼를 더욱 잘 보살피였습니다. 강'가에 나가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아다 쌀'겨에다 끓여 새끼 밴 어미 토끼에게 먹이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토끼는 살이

피둥피둥 지면서 새끼도 많이씩 낳았습니다.

이들은 오리알을 부화기로 깨우는 일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축산 기사 아저씨의 방조를 받아 깨우군 했는데 이제는 자체로 오리 알을 잘 깨우기도 한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이야말로 모두 어린 축산 기사들이였습니다.

지금 소조원들은 모두가 다 가축 예방 주사를 놓을 줄 알며 제법 해부도 하면서 가축들의 생리와 그 특성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 소조원들은 새끼 돼지가 흔히 앓는 호흡기병, 백리증을 예방하는 법도 연구해 냈답니다. 그들은 학교 뒤'산에 있는 민들레, 쥐손이풀, 삼지구엽초, 세신 등 약초를 뜯어다가 사료에 섞어 먹이군 했답니다. 그랬더니 새끼 돼지들은 한 번도 앓지 않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들은 가축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세신, 쥐손이풀, 삼지구엽초 등 20여종의 약초밭을 만들어 가꾸기도 했습니다. 심어 가꾼 약초로 학교의 가축 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협동 농장 축산반에도 가져다 드리군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가축을 기르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 가서도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자기 집 가축 기르기와 협동 농장 축산반 아저씨들의 일'손도 도와 드린답니다.

이렇게 실험과 실습을 잘 해 나가는 소조원들은 모두 최우등생으로서 학교와 마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왜 낮과 밤이 생길가요?

우리는 매일과 같이 태양, 달,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는 서쪽으로 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제절로 도는 것)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것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돌면서 동시에 자전합니다. 이 때 즉 지구가 자전할 때 태양 쪽을 향한 표면은 태양 빛을 받아 낮이 되며 반대쪽 그늘진 곳은 해'빛을 받지 못 해 밤이 되는 것입니다.

리 자 웅

꽃은 웃어도 소리가 안 들리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볼 수 없네

이 시는 리 규보 선생이 열 한 살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만 보아도 선생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뛰여 난 재간을 가진 분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라면 그저 무심히 지나쳐 버릴 꽃과 새를 보고도 선생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처럼 훌륭한 시를 지어 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선생은 그런 뛰여 난 재질을 가질 수 있었을가요? 리 규보 선생은 1169년 6월 15일 경기도 려주 땅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선생은 어렸을 적부터 우리 나라의 고전 작품이란 작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었고 어른들에게서 신화나 옛'이야기들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벌써 열 살이 넘자 선생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처럼 훌륭한 시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격이 굳세고 곧았으며 마음이 너글너글하여 동무들 속에서도 신망이 높았고 남달리 뛰여난 지혜와 재간으로 하여 어른들에게서도 무척 귀여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날에 뛰여난 시인이 될 선생은 이렇듯 소년 시절부터 색다르게 자랐습니다.

나이 들면서 선생은 더욱더 공부에 열중했으며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이 26 세 때에 쓰신 장편시 《동명왕편》(고구려 나라를 세운 주몽 전설을 아름다운 화폭으로 형상화한 것)을 써서 우리 나라 장편시의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 후 선생은 널리 세상을 돌아보고 생활을 깊이 있게 알아야 진실을 노래할 수 있고 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30 세 경에 려주, 상주 등 지방으로 려행을 떠났습니다.

선생은 농민들의 생활을 즐겨 관찰하면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당시 지배 계급들, 귀족들, 돈 많은 자들은 농민을 말이나 소와 같이 천대하였지만 선생은 반대로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 귀족들을 미워했고 농민들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겼습니다. 선생은 《나라가 가난하고 부함은 백성들의 힘에 달렸고,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벼'모 속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당시 사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감정은 《농사'군의 노래》, 《해'곡식의 노래》라는 시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 맞으며 이랑에서 김을 맬 때엔
그 모습 더러워 사람 같지 않지만
부자'집 아드님들 우리를 업수이 보지 말라
자네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덕이라네.
(《농사'군의 노래》의 한 련)

낟알 알알이 그 얼마나 귀중한가.
사람의 죽고 삶이 이 낟알에 달려 있네
그러기에 농부를 부처님처럼 존경하노라
부처는 굶은 사람 구해 내지 못 하나니—
(《해'곡식 노래》의 한 련

부처란 옛'날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던

것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낸 인도의 석가무니가 후세에 와서 부처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농부를 부처님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는 굶은 사람을 살려 낼 수 없지만 농민들은 쌀을 내여 그들을 살려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 계급은 농민들이 맑은 술과 이밥 먹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직접 쌀을 만드는 농민들이 못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선생은《서울 안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에선 술과 쌀밥이 썩어 나고, 개나 돼지도 이밥을 먹는데 농사'군을 왜 이렇게 천대하는가, 나라의 법이 잘못되였다.》고 격분에 찬 목소리로 웨쳤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나라의 정치가 문란해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허덕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썩은 정치를 뒤집어 엎으려고 투쟁의 불'길을 올렸습니다. 이런 때에도 선생은 귀족의 편이 아니라 농민의 편에 더욱 굳건히 섰던 것입니다.

선생은 32 세 때에야 비로소 전주 지방의 관리로 등용됐습니다. 원래 벼슬'길이 열리는 과거에 합격한 것은 24 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강직하고 깨끗한 성미와 농민을 위하는 립장이 지배 계층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생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멀리 했고 선생은 또 선생대로 그런 자들 속에 들어 가 섞이기가 싫었으며 세상에서 참된 것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벼슬할 생각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이 지방 관리로 등용된 이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계속 벼슬'자리에 있기는 했는데 다른 악질 관리들처럼 인민들의 피와 기름을 짜서 자기의 배를 불리며 마음 내키는 대로 세도를 부리는 것을 털끝 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인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철저한 그는 일생을 가난 속에서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관리로 되면서부터 인민들을 더욱 겸손히 대했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배 계급은 이런 태도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선생의 벼슬'자리를 내려 지방으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은 자기 뜻을 굽힐 분이 아니였습니다.

《태수가 늙은이에게》 라는 시는 그가 계양이란 고을의 태수로 내리먹였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나는 하찮은 선비—
스스로 태수라고 생각지 않나이다.
내 다만 고을 사람들에게 바라노니
나도 저 허술한 늙은이처럼 여겨
할 말이 있거들랑 아무 때나 찾아 오소서
마치 어린애가 엄마 젖을 찾듯이……

태수라는 것은 한 군의 책임자로서 평민들은 감히 가까이 갈 념을 못 냅니다.

그런데 선생은 자기를《허술한 늙은이》로 생각하고 아무 꺼리낌도 없이 찾아 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선생을 찾아 가 가슴에 서리였던 원한들을 다 털어 놓고 이야기하면 선생은 곧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선생은 농민들을 못 살게 구는 관리들을 《강에서 감탕물을 마시고 사는 검은 쥐새끼》 만도 못 하다고 하면서

대체 네 놈들은 아가리를 몇 개나 가져
만백성의 살을 모조리 다 먹느냐

라고 자기 시에서 웨쳤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지배 계급의 악랄한 착취 때문임을 옳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선생이 50 세 안팎의 시기부터 돌아 가실 때까지는 우리 나라에 외적(거란, 몽고)의 침입이 계속되였습니다.

원쑤를 미워하며 조국을 사랑한 선생은 인민들과 함께 이 성스러운 싸움에 뛰여 들어 늙은 몸이지만 있는 기운을 다 내여 침략자와 싸웠으며 시를 지어 싸우는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시 《10월의 번개》는 그 중의 한 작품입니다.

번개야 원쑤의 머리를 때려 쳐라
그러면 제 철은 아니로되
때를 잘 맞추었다고 하리로다.

《번개》는 여름철에 치지만 가을 10월달에도 쳐서 침략자를 무찌르라는 이 시에는 성스러운 조국에 더러운 발'길을 들여 놓은 침략자들을 선생이 얼마나 미워했는가가 똑똑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에서 《번개》를 다만 자연현상인 번개만으로 리해할 것이 아니라 당시 영웅하게 싸우던 우리 용사들, 그들의 손에서 번뜩이는 칼과 창을 비유한 뜻이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싸움, 영웅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그는《다시 쓰노라》의 한 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오랑캐 무리 모질다 하나
악을 써 짖어 대는 개와 같나니
사람에게 덤비며 짖는 개 신세
제 명에 죽기 어려우리라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이 도도히 흐르는 선생의 시편들은 싸우는 인민들의 가슴에 애국적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 오르도록 해 주었습니다.

선생은 몽고 침략자들을 완전히 격퇴하는 것을 보지 못 하고 74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고상한 애국 정신은 인민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 왔고 또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우리 나라에서 옳바른 문학 창작 원칙들을 주장한 맨 첫 분이기도 합니다. 선생은 옛글을 모방하여 글을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만일 옛날 사람들이 쓴 글을 그 대로 모방해 쓴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옛날 책을 그 대로 판박아 낸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여서 한갓 종이와 먹을 허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선생은 글의 내용에 참된 생활이 담겨야 하며 또 그런 내용에 맞는 아름다운 말과 문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실 생활의 참된 것을 알맹이 있게 담은 내용과 아름다운 말과 문장을 갖춘 글이라야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일생 동안에 8천여 수가 되는 귀중한 시 작품들과 많은 산문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선생의 이 작품들은《동국 리 상국집》(53 권)이란 책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선생은 우리 나라와 인민을 무한히 사랑한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문학을 높은 수준에 끌어 올린 탁월한 시인입니다.

속 담

△ 땀 흘린 밭에 풍년 들고 피 흘린 곳에 기와집 짓는다.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하면 반드시 그 보람이 있다는 데서 나온 말.

△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 간다.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해도 노력을 안 하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

소설

새로 들어 온 야학생

송 영

> 이 소설은 해방 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악독한 왜놈들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왜놈들의 압제 밑에서도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어떻게 굳세게 살아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아버지는 환갑까지 지낸 로인입니다. 머리는 허옇게 세였으나 아직까지 허리는 구부려지지도 않고 게다가 다리와 팔은 젊은 아저씨보담 못지 않게 굵은 힘'줄이 섰습니다.

그도 그러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로동만 해 왔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원래 시골서 소작살이를 하다가 지주에게 쪼들리다 못해 서울로 이사를 해 와서 전기 회사의 잡부로 되였습니다. 소제 아니면 짐 구루마를 끌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 없이 그냥 부지런하게 다니기를 이십 년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다.

집안 식구로는 아버지보담도 훨씬 나이는 젊었지만 몇 곱 더 늙어 보이는 어머님 한 분과 또 올해에 겨우 열 세 살 밖에 안 되는 만득이와 모두 세 사람 뿐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마흔이 넘어서야 겨우 낳으신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만득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만득이 우로 딸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일찍 죽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주리고 시들어서 죽였던 것이였습니다. 소 갈이 벌어도 죽 끼니도 겨우 할가 말가 한 형편이였으니 혹시 아들이 병이 난다 해도 약 한 첩 먹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득이는 요행히 그냥 자라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몹시 귀하고 소중스러히 여기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목숨같이 여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월급을 타고 지냈지만 만득이는 지금 보통 학교 5 학년생입니다.

(2)

봄입니다.

아지랑이 속에서 종달새 소리가 꿈 같이 들려 나오고 진달래와 개구리는 한참만에 서로 만나 보아서 반갑다고를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공덕리 산 언덕 비탈 우에는 바람만 몹시 불어도 떠나 갈듯한 엉성한 집들이 소복하게 늘어 놓였습니다.

말이 집들이지 솜틀이나 닭장보다도 못 한 편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봄만은 찾아 왔다고 참새들이 판장설구 우에 앉아서들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집안들을 들여다 보고 못 마땅한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나 오늘 월급이 올라 간다우. 아주 오래 동안 말 없이 다녔다고 사장도 감탄을 한다오.》

아버지는 헝겊 구두를 신으면서 어머니를 보고 좋아하였습니다.

벤또(점심밥)를 싸고 있던 어머니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책보를 싸고 있던 만득이도 입을 벌리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애 만득아, 내 오늘 네 새 양복 하나 사다 주마, 그리고 래년에는 중학교도 들여보내 줄께. 월급이 많아지니까 그것 쯤은 넉넉하다.》

만득이는 다 떨어진 헌 양복을 만지락거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이구 좋아라 아버지, 정말 나 중학교 가지?》

《그럼, 그러게 올에 6 학년 올라 가거든 공부를 더 잘 해라. 그래야 입학 시험에 급제를 하지 않니?》

《그까짓 입학 시험쯤야 아무 념려 마세요.》

아버지는 만득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더 좋아하였다.

《여보 마누라, 임자도 내 치마 한 감 마련해다 줄께 허허허.》

아버지는 벤또를 끼고 활개짓을 하면서 숨틀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만득이도 책보를 휘두르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대문까지 나와서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가냘픈 웃음이 띄여 있었습니다.

(3)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금테 안경을 쓴 일본인 서무과장은 아버지를 책상 앞에다 불러다 세워 놓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매우 미안하지만 집에 가서 쉬고 있소. 회사 일을 위해서 오래 동안 수고했소. 회사의 규칙이 나이 륙십이 넘은 사람을 내보내게 됐단 말이요. 이것은 약소하지만 받아 두시오. 매우 섭섭하오.》

하면서 오십 원쯤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꽉 막히고 두 눈이 캄캄해져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들리지 않을 뿐이였습니다.

반이나 미친듯이 되여서 그 대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들 모여 들어서 섭섭하다고 인사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지금 이 로인과 같이 자기들도 언제든지 저렇게 쫓기여 나게 되겠고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서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벙어리 모양으로 멍—하니 섰기만 하다가 별안간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염병할 것, 이럴 수가 있느냐 말야.》

이러면서 그냥 획 뛰여 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한단 말인가?》

《장차 어떻게 살아 가나?》

《우리 만득이는 어떻게 중학교엘 입학시키나?》

《빌어먹을 세상, 고놈들이 언제 망하나?》

천 가지 만 가지 생각 끝에 아버지는 거의 울듯이 되여 깊은 한숨만 쉬였습니다.

정신 없이 한참 걸어 간다는 것이 남대문 안 태평동 큰 거리였습니다.

량 편에는 헌 구두와 헌 양복을 파는 고물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라!》

아버지는 한편을 바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고물상에 걸려 있는 학생 양복과 모자가 눈에 띄였던 까닭입니다.

아버지는 덮어 놓고 그리로 들어 가서 학생 양복과 모자 그리고 반물색 무명치마를 샀습니다.

(4)

한 달이 지난 뒤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월급이 더 많아진듯이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듯이 집안 식구들을 속이고서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들어 가군 했습니다.

어느 공일날입니다. 만득이는 동무들과 같이 학교 전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려고 한강 철교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라 유리 같은 강물 우에는 뽀트가 가득히 차서 있었습니다. 강 언덕 우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져서 물 우에 그림자가 얼른거렸습니다.

《너도 철교를 그리니?》

만득이가 옆에 있는 동무의 그림을 들여다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도 철교를 그리려고 그랬더니만 가만 있자, 그럼 나는 다른 것을 그릴가?》

하면서 만득이는 혼자서 언덕으로 올라 갔습니다. 수도국 옆에는 여러 로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괭이질도 하고 지게질도 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는 우연히 그 중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그는 확실히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해여진 바지에 떨어진 신을 신고서 지게를 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일이였습니다.

왈칵 달려 가서 《아버지!》하고 불러라도 보고 싶었으나 어쩐지 발이 땅에 꼭 붙어 버렸습니다.

저절로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 만득이는 동무들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전차에 올라 탔습니다.

만득이 아버지는 집에서는 회사로 나가는듯이 하고서 나와서는 실상은 이곳 저곳으로 돌아 다니면서 뜨내기 로동을 하였습니다.

(5)

만득이는 그 길로 아버지가 다니던 전기 회사로 찾아 갔습니다. 마침 점심 시간이라 대문'간에는 여러 직공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응, 뭐냐?》

《저 여기 아주 오래 다니는 로인이 지금도 그냥 다니십니까?》

《누구! 그런 분 안 계신데.》

그 젊은이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만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공터리 사시는 로인 말이예요.》

《응 저 리 첨지 말이지.》

《네.》

만득이의 눈은 반짝 빛났습니다.

한 젊은 직공이 말했습니다.

《응 그 로인은 한 달 전에 쫓겨 나가셨단다. 나이가 늙어서 부려먹을 수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젊은 직공이 몹시 흥분이 되여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동안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소용 없단다. 막 부려 먹던 소가 늙어서 일을 굼뜨게 하게 되면 잡아 먹는 셈과 똑 같단다.》

이 말이 끝나자 모든 젊은 직공들은 몹시 분한듯이 주먹들을 불끈불끈 쥐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길래 그 로인 이야기를 물어 보니?》

젊은 직공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득이는 목이 메서 아무 대답도 못 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너 왜 우니?》

젊은 직공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가서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만득이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나를 마음 언짢게 해 주시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거짓말을 하시면서 그런 고된 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면 갈수록 만득이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두 눈에서 눈물만이 샘솟듯 흘러 나왔습니다.

(6)

만득이는 집에 돌아 와서 저녁도 먹지를 않고 방 한편 구석에 들어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디가 편치 않은가 하며 매우 애를 썼으나 만득이는 말 한 마디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날이 아주 어둔 뒤에야 아버지는 일부러 벙글벙글 웃으시며 활개짓을 하면서 돌아 왔습니다.

《어어 오늘은 어떻게 회사에 일이 많은지 이렇게 늦었지.》

토방에 걸쳐 앉으시면서 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좀 근심된 얼굴로

《여보, 만득이가 아까 들어 오면서 어디가 아픈지 저렇게 누워만 있구려.》

《어디? 아니 왜 그럴가?》

아버지는 놀라시면서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만득아, 너 어디 아프냐?》

아버지는 만득이의 머리를 만져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앉아서 만득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당초에 아무 말도 없다우. 별안간 웬 일인지 모르겠수.》

《글쎄 웬 일일가? 얘 만득아, 어디 아프냐?》

두 분은 번갈아 가면서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만득이는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너 왜 우니?》

두 분은 더 한층 놀랐습니다.

만득이는 벌떡 일어 나 앉았습니다. 그동안 소리 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시뻘겋게 퉁퉁 부었습니다.

《너 왜 울었니 응? 어디가 아프냐?》

《아니요.》

《그럼 누구하고 쌈을 했니?》

《아니 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난 다 알아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 나와 거짓말 출근을 매일 하고 계신 것을…》

《응?!》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까지도 놀랐습니다.

《앗!》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그는 확실히 자기의 아버지였다.

만득이는 목 멘 소리로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한강에 다니지 마세요. 암만 봐도 아버지 같이 늙은 로동자는 없던데요. 그러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난 중학교에 안 가도 좋아요. 뭐 지금 학교도 졸업을 안 해도 좋아요. 나도 래일부터는 벌이하러 공장에 다닐테요. 아버지, 한강에 가시지 마세요.》

겨우 말을 끝내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 ×

며칠 뒤에 만득이는 야학생이 되였습니다. 낮에는 어느 공장의 견습 직공 노릇을 하였습니다.

만득이의 책상 우 벽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학 공부라도 열심히만 하자!》

언제든지 만득이는 밤 늦도록 이 글을 바라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만득이가 읽는 책은 보통 학교에서 배워 주는 책과는 몹시 다른 것이였습니다.

만득이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아버지와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 밖 하늘의 작은 별들까지 눈물이 나는듯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나 만득의 좁은 가슴 속에는 온 세상을 태워버릴듯한 불'길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뜨거워졌습니다.

(1933.)

우리가 흔히 쓰는 약

어느 날 영숙이네 반 동무들은 반실에 위생함을 갖추어 놓기 위하여 《꼬마 진료소》에 찾아갔지요.

《그것 참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그처럼 위생함에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약을 갖추어 놓으면 동무들이 갑자기 아픈 데가 있어도 손쉽게 치료할 수 있지 않어. 그러면 내가 약 쓰는 방법을 대주지.》하면서 꼬마 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 **마키롬 액**…이 약은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쓴다. 상처가 났을 때에는 이 약을 바르고 가제로 처매면 된다. 그러나 상처가 많이 났을 때에는 마키롬 액으로 소독하고 옥도정기를 발라야 한다. 약을 바를 때에는 약솜에다 적시여 바른다.

△ **옥도정기**…이 약은 발목이나 손목이 움질려 부어날 때, 또는 타박상을 입었을 때 솜이나 가제에 적셔서 바른다. 그런데 상처 자욱이 난 곳은 바르지 말아야 한다.

△ **아스피린정**…이 약은 알'약인데 감기, 신경통, 머리가 아프며 열이 오를 때에 먹는다.

쓰는 방법은 어른은 한 번에 1 알~2 알씩 하루 세 번 공복에 먹는다. 그런데 9 세부터 11 세까지는 어른 량의 $\frac{1}{2}$~$\frac{1}{3}$, 12 세부터 15 세까지는 $\frac{1}{2}$을 먹으면 된다.

이 약을 먹을 때에는 더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누어 땀을 내는 것이 좋다.

△ **건위정**…이 약은 체했을 때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입맛이 없을 때 먹는다.

쓰는 방법은 어른은 한 번에 3~5 알씩 하루 세 번 먹는다. 그런데 9 세부터 11 세까지는 어른 량의 $\frac{1}{2}$~$\frac{1}{3}$, 12 세부터 15 세까지는 $\frac{1}{2}$~$\frac{2}{3}$를 먹는다.

이 약은 식사한 30 분 후에 먹는 것이 좋다.

△ **다이아찌정**…이 약은 폐염이나 악성감기, 리질, 설사 등에 먹는다.

쓰는 방법은 어른은 첫 번에 4 알을 먹고 다음 4 시간 간격으로 2 알씩 48 시간 동안 먹는다. 그런데 7 세부터 11 세까지는 어른의 $\frac{1}{3}$~$\frac{1}{2}$, 12 세부터 15 세까는 $\frac{1}{2}$~$\frac{2}{3}$를 먹는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구역질이 나며 열이 날 때에는 약 먹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이 약 먹을 때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 **산토닌**…이 약은 회충을 없애는 데 먹는 약이다. 이 약은 흰 색으로 된 알'약과 분홍색으로 된 알'약이 있다.

쓰는 방법은 어른은 하루에 두 번 먹는데 식사하기 2 시간 전에 먹는다. 흰 알'약은 한 번에 10 알씩 먹고 분홍색 알'약은 한 번에 5 알씩 먹는다.

그런데 9 세부터 11 세까지는 어른의 $\frac{1}{3}$~$\frac{1}{2}$ 12 세부터 15 세까지는 어른의 $\frac{1}{2}$~$\frac{2}{3}$를 먹는다.

이 약은 극약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약을 먹은 다음 기름이나 채소 같은 것을 먹지 말며 2 시간 후에 류산마그네슘(설사약)을 먹고 배설해야 한다.

△ **구아니딘정**…이 약은 설사나 리질에 먹는다.

약을 쓰는 방법은 어른은 첫 번에 4 알을 먹고 다음 4 시간 간격으로 2 알씩 48 시간 동안 계속 먹는다. 그 다음(3 일 후)은 1 번에 2 알씩 하루 세 번 먹는다.

그런데 7 세부터 11 세까지는 어른의 $\frac{1}{2}$~$\frac{1}{3}$, 12 세부터 15 세까지는 $\frac{1}{2}$~$\frac{2}{3}$를 먹는다. 이 약을 먹을 때에는 미음이나 죽을 먹는 것이 좋으며 몸을 덥게 하며 운동을 하지 말고 몸을 안정해야 한다.

끝으로 《꼬마 의사》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또 규정된 시간보다 자주 먹어도 몸에 해롭다고 하면서 반드시 규정된 량만큼 제때에 규칙적으로 써야 효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림 이야기)

꾸바의 소년 영웅—마누엘

마누엘 아스꼰제 도메네취는 큐바의 애국 소년이였습니다. 그는 1961년을 교육의 해로 하자고 한 혁명 정부의 결정을 받들고 17 세의 어린 몸으로 에스깜부라의 깊은 산 속에 들어 가 그 곳 인민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며 혁명의 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우다가 그만 반 혁명 분자들의 손에 억울하게 희생되였습니다. 여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① 마누엘은 1945년 1월 25일에 싸구아라 그란데 시에서 태여났다. 그가 두 살 되던 해 집에서는 하바나시로 이사해 왔다. 그 때부터 그는 후스띠시야 거리 574 번지에서 살며 자랐다.

《어머니, 학교에 가면 난 공부를 잘 할래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싼따 마르따 학교에 입학하고 돌아 오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② 《축하해요. 마누엘 앞으로도 계속 최우등을 하세요》

선생님은 성적증을 마누엘에게 돌려 주며 말씀하였다.

마누엘은 공부를 잘 하였다. 그는 언제나 최우등을 했다.

착한 마누엘은 부모들에게 효성이 지극했다. 그는 학교에 가면 동무를 사랑하고 마을에서는 웃 어른들을 존경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항상 사랑과 칭찬을 받았다.

③ 마누엘은 자기가 옳다고 한 번 마음 먹으면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례배당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런 데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었다.

그가 옳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도 꺾지 못 하였다.

④ 그는 운동을 몹시 좋아 했다. 시간만 있으면 동무들과 함께 롱구, 야구 시합을 조직하고 유쾌하게 놀았다. 그는 학교에서도 이름 있는 체육 선수였다. 마누엘은 학교별 경기에 나가면 언제나 학교의 이름을 떨쳤다.

⑤ 큐바에서 무장 혁명이 승리했다. 마누엘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감격의 이 날을 맞았다. 혁명의 승리는 어린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를 혁명의 길에 들어 서게 하였다.

⑥ 1960년 말, 그는 영예스럽게도 혁명 청년 동맹에 가입했다. 그 때부터 그는 분 초를 다투어 가며 독서와 학습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그는 혁명 투사들이 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일하며 생활했는가를 배웠다. 그는 자원 로동에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⑦ 1961년 1월 28일 마르디 탄생 기념일 군중 대회에서 피델 카스트로 수상은 에스깜부라이에 나가서 문맹 퇴치 사업을 하다가 제국주의자들에게 학살 당한 끄라도 베니떼스를 추모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원쑤들은 끄라도 베니떼스를 죽였지만 또다시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베니떼스의 이름을 부르며 산'골로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문맹의 뿌리를 뽑아 치울 것이다…》

⑧ 수령의 교시를 가슴 깊이 간직한 수 많은 청년들이 문맹 퇴치 사업에 지원해 나섰다. 그 대렬 속에는 마누엘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끼여 있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가 아직 어리다고 걱정했지만 혁명 위업을 위해 바치려는 어린 아들의 지성을 꺾을 수는 없었다.

⑨ 에스깜부라이로 간 마누엘은 뻬뜨로 란띠구아라는 한 농민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그는 글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짬만 있으면 일을 찾아 하면서 농민들을 도왔다. 그는 몸이 아플 때에도 주인이 말리는 것을 무릅쓰고 그들의 커피 따는 일을 도와 주었다.

⑩ 마누엘은 일터에 나가서 함께 일하다가 짬이 생길 때면 농민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쳤다. 밤이면 농민들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글을 배워 주었다.

《나를 따라 받아 읽으십시오. <토－지－개－혁－…>》

이리하여 농민들은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자를 쓰게 되고 편지를 읽게 되였다.

⑪ 마누엘은 문맹 퇴치 위원회에서 돈을 주면 오히려 그것으로 과자를 사서 마을의 어린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대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⑫ 어느 날 밤이였다. 뜻 밖에 마누엘이 들어 있는 란띠구아 농민의 집에 제국주의 앞잡이 놈들이 달려 들었다. 《오라 네가 바로 빨갱이 선생이로구나…》 원쑤놈들은 나라의 문맹 퇴치 사업에 열성을 다하는 이 애국 소년에게 총'부리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문맹 퇴치 교원이다.》

마누엘의 용감성에 겁을 먹은 원쑤놈들은 악착스럽게도 마누엘과 집 주인 아라띠구아를 학살하고 도망했다.

⑬ 이리하여 마누엘은 비록 희생되였으나 그가 남긴 애국의 뜻은 혁명 큐바 인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게 될 것이다.

끄라도 베니떼스와 마누엘은 영광스러운 기'발로 되였다. 이 기'발 아래 전체 인민이 문맹 퇴치를 위한 전투에로 떨쳐 나섰다. 이리하여 큐바의 땅 우에서 문맹은 영원히 청산되였던 것이다.

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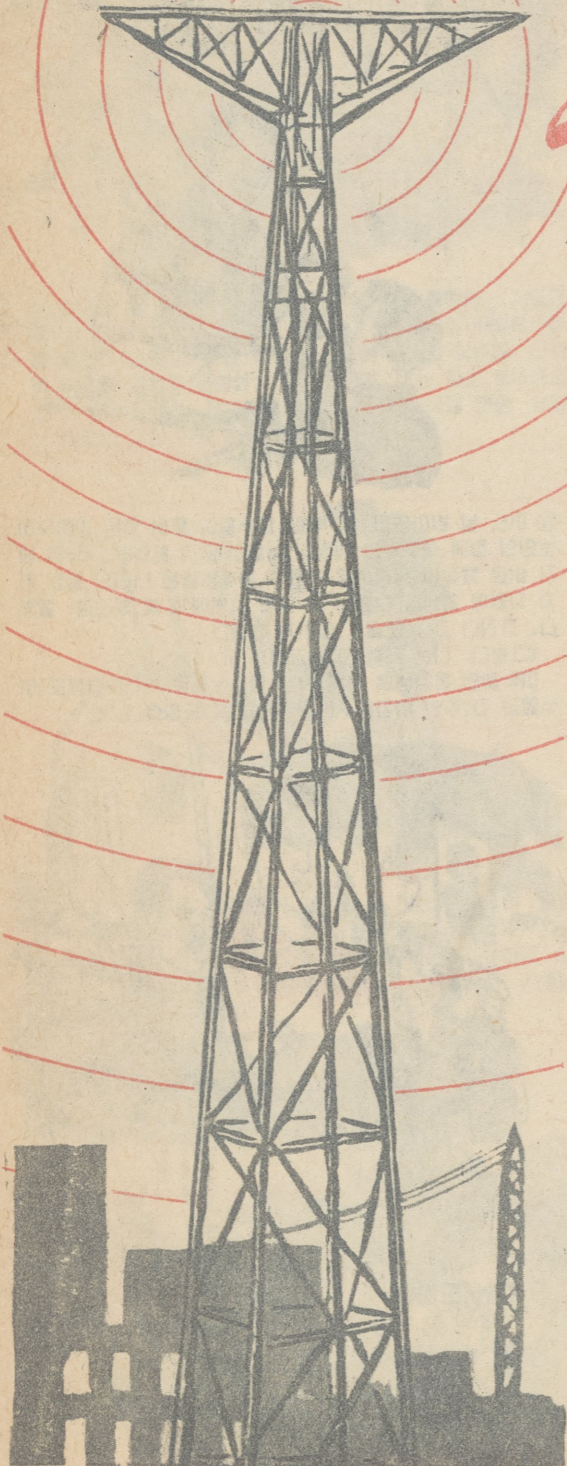
△ 십 리 길도 죄여 가랬다.

작거나 쉬운 일도 게을리하면 실패한다는 데서 나온 말.

△ 도랑 막고 고래 잡을가.

로력을 적게 들이고 큰 것을 바라는 현상을 이르는 말.

우리가 라지오를 듣게 되기까지

전 락 희

라지오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벗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지오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나라 안팎의 새 소식들과 과학, 문화, 력사, 지리 등에 관한 각종 이야기 그리고 흥겨운 노래'소리 등을 들려 주며 그 밖에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아마 라지오를 들으면서 아무런 줄도 없이 어떻게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그 대로 날아와 들릴가고 신기하게 생각할 때가 많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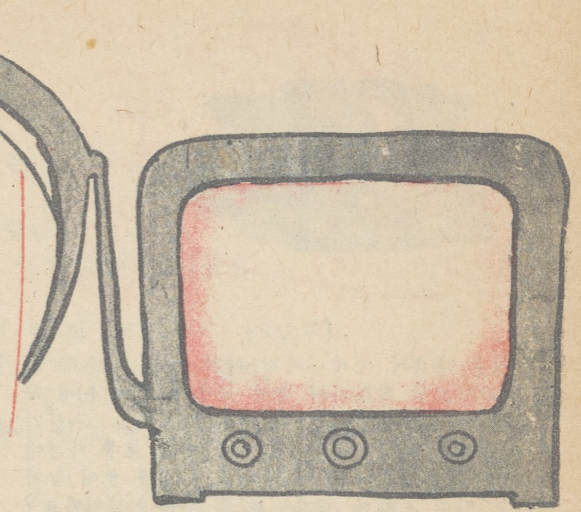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라지오의 원리를 알아 봅시다.

이것을 알자면 맨먼저 고주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라지오가 바로 이 고주파 전기를 리용한 전기 기구이기 때문 입니다.

고주파 전기란 1 초 동안에 몇 만 번, 몇 십만 번이나 방향을 바꾸면서 흐르는 전기를 말합니다. 이런 고주파 전기를 전기'줄에 통과시키면 그 전기'줄 주위에는 마치 잔잔한 늪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동굴동굴한 파문이 곱게 생겨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고주파 전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간답니다.(그림1)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던 이 고주파 전기가 어떤 전기'줄에 부닥치면 그 전기'줄에는 처음 전기'줄에 통과시켰던 것과 같은 고주파 전기가 다시 생긴답니다. 이것이 바로 라지오의 기본 원리이지요.

방송에서는 대체 10 키로 싸이클에서 3만 키로 싸이클까지의 고주파를 리용하고 있답니다. 싸이클이라는 것은 1 초 동안에 몇 번 방향을 바꾸는 전기인가를 표시하여 주는 단위인데 1 초 동안에 두 번 방향을 바꾸면 1 싸이클, 네 번 바꾸면 2 싸이클이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나 공장들에서 쓰고 있는 것은 60 싸이클 전기이기 때문에 1 초 동안에 120 번 방향을 바꾸는 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고주파 전기를 리용하여 말 소리나 노래 소리를 보내고 있는 방송국은 어떤 장치들로 되여 있을가요?

무선 방송국에는 고주파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가 있답니다. 1 초 동안에 몇 십만 번이나 방향을 바꾸는 고주파 전기는 보통 발전기와 같은 기계를 돌려 가지고서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주파 전기는 특수한 장치로 된 진공관 발전기에서 얻어집니다. 진공관 발전기는 진공관과 그리고 전기'줄을 여러 바퀴 감아서 만든 선륜 전기를 받아 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축전기를 서로 련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진공관 발전기를 벽시계에 비유해 본다면 우선 시계의 태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축전지나 건전지 혹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정류기를 거쳐 만든 직류 전기이며, 시계의 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륜과 축전기, 치차가 돌아 가거나 멎게 하는 걸개쇠의 역할을 하는것은 진공관이랍니다. 시간이 늦어질 때에는 시계 추의 길이를 짧게 하고 반대로 빨라질 때에는 시계 추의 길이를 길게 하면 되는 것처럼 진공관 발전기에서는 선륜의 줄감기 회수와 축전기의 용량을 적당히 조절하며 요구되는 주파수의 고주파 전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림 2)

다음은 말 소리나 노래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 주는 장치입니다.

방송원 아저씨가 전화기의 송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마이크》앞에서 말을 하면《마이크》를 통하는 전기는 방송원 아저씨의 말 소리와 꼭 같게 된답니다. 물론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할 때에도 같은 리치로《마이크》를 통하는 전기가 그렇게 변하지요. (그림 3)

그런데 제때 제때에 전하는 새 소식은 방송원 아저씨가《마이크》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모란봉 경기장에서 낮에 진행한 운동 경기 실황을 밤에 그 대로 방송한다든가 며칠 전에 있은 학생 야회를 어떻게 있는 그 대로 방송할 수 있을가요?

이런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록음기랍니다. 록음기란 축음기처럼 말이나 노래 소리를 잡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 기계를 돌리면 그 대로 다시 나오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록음해 두었던 말이나 음악을 방송하자면 이 소리를 방송 기계에 집어 넣으면 방송원 아저씨가《마이크》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이 방송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을 중계하는 중계 방송도 듣군 합니다. 중계 방송을 하려면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을 라지오로 받아서 그것을《마이크》에 집어 넣으면 록음기를 썼을 때나 또는 방송원 아저씨가《마이크》앞에서 직접 방송할 때와 꼭 같은 리치로 방송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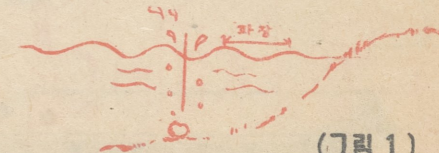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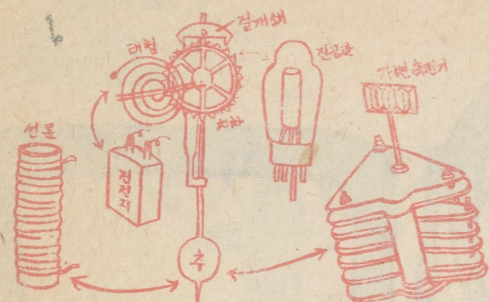
그럼 유선 방송이란 어떤 것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리치입니다.

유선 방송국에서는 방송음을 라지오로 받아서 소리를 세게 하는 기계에 넣어 가지고 집집마다에 설치해 놓은 고성기들에 방송음 대로 변화된 전류를 전선을 통해 보냅니다. 그러면 고성기에서 방송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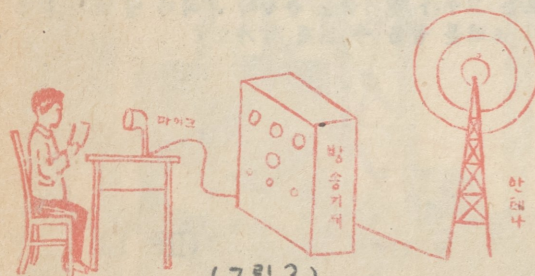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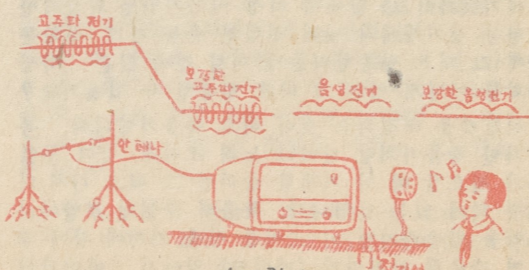
이렇게 말 소리나 노래 소리에 일치하게 만들어진 전기를 음성 전류라고 하는데 이 음성 전류를 진공관 발전기에서 만든 고주파 전류에 실어 주면 이 고주파 전류는 음성 전류의 모양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러니 고주파 전기를 비행기들이라고 비유해 말한다면 음성 전기는 고주파 비행기들에 실어 놓은 어떤 물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 소리나 노래 소리에 맞게 만든 음성 전류를 실은 고주파 전류를 안테나 또는 공중선이라고 하는 높다란 철탑 우에 늘여 놓은 전기'줄에 통과시키면 고주파 전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라지오에서는 어떤 원리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고주파 전기들을 붙잡아 우리가 말 소리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가요?

(그림 1)

(그림2)

그것은 방송국 안테나에서 퍼져 나온 고주파 전기가 라지오에 련결하여 놓은 공중선(안테나)에 와 부딪쳐 여기서 생긴 고주파 전기가 라지오 수신기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가정에서 쓰는 라지오에는 공중에 안테나 선을 늘여 놓지 않아도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가요? 그것은 라지오에 련결되는 전등선이 공중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공중선을 따로 늘이지 않을 때에는 땅에 묻은 접지선(아스선)을 라지오의 뒷면에 있는 《공중선 련결 꼭지》에 련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등선이 《접지선 련결 꼭지》와 련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선을 따로 늘일 때에는 공중선을 《공중선 련결 꼭지》에 련결하고 접지선은 《접지선 련결 꼭지》에 련결해야 하나 공중선을 따로 늘이지 않을 때에는 접지선을 《공중선 련결 꼭지》에 련결해야 고주파 전기가 통하는 길이 생기게 된답니다.

라지오의 입구에는 여러 방송국에서 보내 오는 여러 가지 고주파 전기들이 생기지요. 그러니 라지오에는 우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방송 소리만을 갈라 내는 장치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들으려 하는 방송 소리만을 갈라 낼 수 있을가요? 동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진동 수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물체들을 놓고 소리를 내게 하면 그 중 진동 수가 서로 같은 물체의 진동만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라지오에서 소리 내는 물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고주파 전기를 얻는 데 씌이는 것과 같은 선륜과 축전기랍니다.

이제 평양 방송을 듣다가 어느 도 방송을 들으려 할 때에는 라지오의 앞면에 달려 있는 주파수 조절 손잡이를 돌려 자기가 듣고자 하는 도 방송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눈'금에 바늘을 돌려 놓습니다. 이렇게 라지오의 주파수 조절 손잡이를 돌리면 라지오 안에서는 용량 (전기가 흐르는 량)을 바꿀 수 있게 되여 있는 축전기 즉 가변 축전기의 극판들이 돌아 가면서 축전기의 용량이 바꾸어지며 따라서 라지오에서 받아 들이는 방송 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선륜과 축전기는 소리 나는 물체와 같은 원리로 자기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방송 소리에만 공진(같은 시간에 진동수가 똑 같은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진동시키면 공기의 파동으로 두 번째 물체가 진동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전기에서는 공진이라 합니다.)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방송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지오에는 또 어떤 장치가 있을가요?

공간을 통하여 날아 온 고주파 전기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는 과정에 몹시 약해집니다. 그래서 라지오의 공중선에 나타난 고주파 전기를 그 대로 가지고서는 방송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방송국 가까이에 있다면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라지오의 공중선에 나타난 고주파 전기들 중에서 자기가 들으려는 것만 골라 내고 또 그것을 크게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진공관과 선륜 그리고 축전기가 이런 일을 하는 장치랍니다. 선륜과 축전기는 자기가 들으려는 방송 소리만을 통과시키고 진공관은 그것을 크게해 주지요.

다음으로 고주파 전기는 1 초 동안에 수만 수십만 번이나 바꾸어지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 대로는 고성기(스피카)를 동작시키지 못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전기에서 음성 전기만을 갈라 내야 하는데 이 역할도 진공관이 감당한답니다.

그러니 고주파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약한 고주파를 크게 해주는 것도 고주파 전기에서 음성 전기를 갈라 내는 것도 모두 진공관과 선륜 그리고 축전기가 하지요. 그러니 라지오는 진공관 선륜 축전기들의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에서 갈라 낸 음성 주파 전기를 진공관을 통과시켜 더 세게하여 고성기를 통과시키면 음성 주파 전류가 말 소리나 노래 소리로 되살아 나게 되지요.

고성기는 종이 나팔과 전기 자석으로 되여 있는데 전기 자석에 감겨 있는 전기'줄에 음성 전류를 통과시키면 전기 자석이 종이 나팔을 방송 소리와 꼭 같게 진동시키기 때문에 방송 소리가 되살아 나게 된답니다. (그림 4)

이상과 같이 우리가 방송을 듣게까지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3)

(그림4)

인민 군대 형님들

독자란

밤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초소에 서 계시는 인민 군대 형님들을

바다'가에 어린 저 별'빛 새로
형님들은 원쑤놈들 노려 보고 계시겠지.
우리의 포근한 밤'잠을 지켜
총'대를 튼튼히 틀어 잡고 계시겠지.

아, 미제 원쑤놈들과 싸워 이겨
사랑하는 조국 지킨 인민 군대 아저씨들
오늘도 튼튼히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서 계십니다.

소년단원 우리들이
서로 도와 학습하는 이런 밤에도
칼바람을 막으며 눈보라를 뚫으며
인민 군대 형님들 초소를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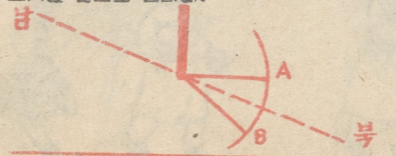
함북 길주군 길주 중학교
김 창일

그림자로 남북을 알아 내는 법

평탄한 땅에 곧은 막대기를 세우시오. 정오가 되기 2~3 시간 전에 땅에 생기는 막대기의 그림자 끝점을 A라 표시하십시오. 다음에 점 A와 막대기를 반경으로 하는 원을 그리시오.

오후가 되면 막대기의 그림자는 다시 원의 한 점과 닿을 것입니다. 이 점을 B라 하십시오.

점 A, B를 련결하고 A, B의 중심점과 막대기를 련결하시오. 이 때 A, B의 중심점과 막대기를 련결한 직선은 남 북을 가르키는 선으로 됩니다.

남 A B 북

(물리 용어 풀이)

아네로이드 기압계

아네로이드(anenord)라는 말은 영어로 《액체 혹은 수은을 쓰지 않는》다는 형용사입니다.

이로부터 아네로이드 기압계라는 것은 액체 또는 수은을 쓰지 않고 금속으로 만든 기압계라는 말입니다.

동요

영웅 나라 지켜요

맑고 푸른 하늘에
흰 선 그으며
하늘 높이 끝 없이
《제비》가 날아요, 비행기가 날아요.

온 세상에 이름 떨친
인민 군대 아저씨들
조국 하늘 지켜요,
영웅 나라 지켜요.

원쑤놈들 비행기
암만이구 덤비래죠.
영웅 군대 우리 《제비》
당할놈들 없어요.

함북 김책시 쌍암 중학교 3 학년
리 응길

귀여운 염소

목에는 달랑달랑 방울이 두 개
이마에는 뾰족뾸 송곳이 두 개
날씬한 목과 다리, 어디를 봐도
우리 집 아기 염소 귀여운 염소.

아침 저녁 보살피고 먹이도 주는
나를요 엄마라고 매매매—
학교에 오갈 때는 멀리서 봐도
어느새 알아 보고 매매매.

몰라 보게 자라나는 귀여운 염소
오늘은 힘내기를 하자 들길래
두 뿔을 살짝 잡아 봤더니
장수힘 우쩍 생겨 났어요.

황해 북도 서흥 중학교 중등반 1 학년
곽 준규

우리 집 벽에 걸린 큰 거울 앞에
아침 저녁 언제나 마주 서면은
방긋 웃는 내 얼굴 비치어 줘요.
《모범 분단》 휘장이 반짝반짝 빛나요.

거울 앞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
선렬들의 높은 뜻 담겨 있어요.
아동단의 모범 따라 배워 나가는
우리의 붉은 마음 이끌어 줘요.

거울 앞에 마주 서서 옷차림 할 때면
《모범 분단》 휘장이 반짝반짝 빛나요.
오늘 위해 목숨 바친 선렬들 따라
자라 나는 붉은 마음 자랑 가득히…

철따라 새 교복에 비닐 가방 메고 서면
다함없는 이 행복 우리에게 안겨 준
김 일성 원수님께 감사 드려요.
《준비하자!》 손들어 맹세 다져요.

황해 북도 신계군 구락 중학교 3 학년 1 반
홍 기홍

동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동무들 반실로 모여 오며 속삭여요.
너는 너는 숙제 공부 다 해 봤니.
나는 나는 한 문제가 딱막혀 그런다야
애들아 앉아서 토론들 하자
최우등반 우리 반 꾸려 나가자.

별 하나 빤짝 별 둘 빤짝
동무들의 눈'동잔 별'빛 같아요.
너는 너는 숙제 공부 참잘 했구나
네 설명 들어 보니 훤히 알려
우리 반 최우등반 꾸려 나가자.

별 하나 방긋 별 둘 방긋
별님들 창틈으로 우릴 보아요.
숙제 공부 다 했으면 래일 준비하래요.
래일 준비 다 했으면 노래를 듣재요.
노래하며 춤추며 공부 잘 하는
최우등반 우리 반을 별들도 아나봐요.

평남도 문덕군 룡담 중학교
제 5 분단 (모범 분단) 집체작

작문

어머니가 하시는 일

우리 어머니는 농장 진료소 조산원이예요. 애기 낳는 엄마들을 돌보시지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시간 맞춰 나가시고 시간 맞춰 돌아 오시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은 밤 늦게도 돌아 오시고 어떤 날은 돌아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 말고도 또 나가셔요. 누가 찾아 오면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네, 함께 갑시다》 하고는 동생을 업고 집을 나가셔요. 지난 밤에도 깊이 잠 든 나를 깨우시며 어머니는 《정현아, 아침에 일찍 일어 나 할머니 일'손을 도와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면 나는 할머니 일'손을 더 잘 도와 드려요.

탁아소에 가는 훈희의 세수도 시켜 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남희의 밥곽도 싸 주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 찬'장에 차곡차곡 넣기도 해요. 어머니가 아무 걱정 없이 더 잘 일하라고요…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황해 북도 서흥 중학교 인민반 2 학년
리 정현

(만화)

동화 만화
(2 회)
사슴이네 동산
석호 그림

«옳아 곰서방의 아들이 앓고 있어 그 놈들을 추기 자.
내가 의사가 되라. 약 처방은 사슴의 뿔과 소뿔로 하란말이다. 이젠 시라소니가 새끼 놀거야
16

병이 대단하구나 강장제를 써야 겠다.
강장제는 록용 (사슴의 뿔)이 제일이야,
XXX 의원
17

네 병엔 소뿔을 구해다 먹으면 낳을 수 있어.
18

그놈들이 뿔을 잘라 주지 않을 거야,
싸워서 빼앗아 야지.
19

히히히… 실컷들 싸워라. 힘이 지쳐지면 다 우리 밥이 될걸.
20

«우리 뿔을 빼앗겠 다구, 어림도 없지.»
21

그 이튿날,
그놈들의 싸움을 붙여 봤는데 이게 허사 인걸.
22

저게 저게 큰일 났다. 사태가 내리누나.
아불사 시라소니 네 집이 묻히누나,
23

시라소니가 다치지나 않았을가?
빨리 가서 구해 주어 야지.
24

아저씨! 날 살려 줘요
시라소니네 굴이 꽉 막혔으니 그게 더 급하지,
못 본체 하라.
25

벼락을 맞을 놈들 못 본척 하고 가네,
26

념려말아 내 살려 주마.
27

잘 있거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8

이걸 어떻게 다 파헤치니.
사흘은 걸려야 겠 는걸.
29

어기영 어기영
후— 살았군
30

(끝)

자세를 바로합시다.

새 학기 첫 날에 있은 신체 검사에서 영철이네 분단 동무들은 모두 자세가 바르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쭉 퍼진 데다가 자세도 바르고 건강한 몸이여서 다른 분단 동무들이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자세가 그렇게 바르게 되였을가요?

× ×

△ 공부 할 때

1. 가슴을 책상에 대지 않고 가슴을 곧추 펴고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편안히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림 1)

2. 책과 눈과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눈이 나빠진다고 반드시 책은 눈으로부터 35~40 ㎝ 거리에 (책의 각도는 30~35 도) 놓고 공부 한답니다. (그림 2)

3. 글을 쓸 때에는 학습장을 자기 앞에 (10~15 도 경사지게) 똑바로 놓고 왼 손으로 사분히 누른 다음 오른 손으로 씁니다. 글을 쓸 때 머리는 똑바로 앞으로 약간 숙이고 씁니다. (그림 3)

달리기

체육을 즐기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이 번에는 륙상 지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① 달리기를 잘 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달리기는 준비 운동 (소년단 체조)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

② 단거리 달리기는 처음부터 발'바닥 정면을 짚는 것이 아니라 발끝 일선 상만 짚는 것이 좋다.

③ 허벅 다리를 들어 일선 상에 내 짚을 때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말고 앞으로 약간 숙이는 것이 좋다.

④ 몸통은 지지다리로 (땅에 짚고 있는 다리)부터 허벅 다리로 바꿀 때 옆으로 흔들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앞으로 약간 숙이는 것이 좋다.

⑤ 달릴 때 팔은 90° 각도로 굽히며 량손 주먹은 가볍게 쥐고 얼굴 턱 중심으로 자유로이 흔든다.

⑥ 몸은 앞으로 너무 수그려도 안 되며 지나치게 몸을 흔들어도 안 된다 몸은·약간 (15°쯤) 앞으로 숙이는 것이 좋다.

⑦ 달리기 운동 때 호흡은 률동적으로 간격을 맞추어서 코로 길게 들이키며 내 쉴 때는 입으로 확 내 쉰다.
달리기가 끝나면 걷기와 가벼운 체조를 하여야 한다.

달리기 방법

ㄱ. 출발 준비 자세.
출발 준비 자세는 출발틀 (혹은 구멍) 로부터 2~3 m 뒤에 섰다가 《제자리엣》하는 구령이 나면 1~2 회 정도 가볍게 깊은 숨을 쉰 다음 앞으로 가볍게 달려 나가 앞틀 (앞 구멍) 에 왼 발 또는 오른 발을 내 디디고 팔을 어깨 너비로 짚은 다음 천천히 앉는다.(그림 1)
앉으면서 몸은 무릎 우에 사분히 놓고 다음 구령을 기다린다.

(그림 1)

《차렷 !》 구령이 나면 몸을 천천히 들면서 어깨는 출발선을 짚은 손보다 약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둔부를 어깨 보다 높이 든다. (그림 2) 이 때 숨을 깊이 들이 쉬면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그림 2)

ㄴ. 출발
《출발!!》 신호가 나면 몸을 앞으로 눕히면서 오른 팔 또는 왼 팔을 직각으로 굽혀 힘 있게 뒤로 젖히며 반대 팔은 가슴 안쪽으로 약간 향하여 지면과 수평으로 흔든다.
뒤'다리를 빨리 굽혀 무릎을 우로 힘 있게 들어 올리여 앞 무릎을 힘 있게 편다. 이 때 몸은 지면과 평행되게 눕히면서 출발한다. (그림 3)

(그림 3)

제 1보를 내 디딜 때 뒤틀 (뒤'구멍)을 강하게 차지 말아야 한다.
출발 1~2 보에서는 다리를 옆으로 벌려 디디여야 한다. 그것은 몸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출발 달리기 구간에서는 7~8 보까지 걸음 보폭이 차츰 넓어지도록 짚어야 한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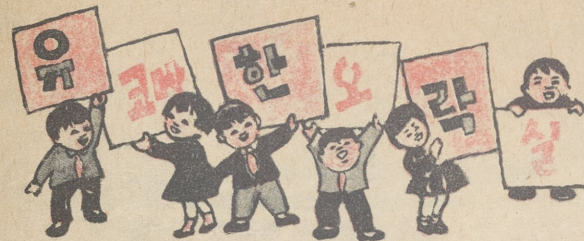
(그림 4)

ㄷ. 중간 달리기 자세
중간 달리기 때에는 몸을 수직보다 약한 앞으로 눕히고 허벅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앞으로 힘 있게 내 디디면서 달린다.

ㄹ. 마지막 달리기 자세
마지막 달리기 때에는 몸이 뒤로 젖히지려는 것을 중간 달리기 자세 그 대로 유지하면서 팔을 뒤로 크게 흔들었다가 앞으로 빨리 힘 있게 저어야 한다.
팔과 함께 다리도 높이 들어 올리며 힘 있게 밟아야 한다.

결승 끈을 끊는 방법은, 《달리는 자세 그 대로 끊기》, 《가슴으로 끊기》, 《어깨로 끊기》 등이 있다. (그림 5)

(그림 5)

(군사 유희)

공격 전투

유희 조직은 공격군과 방어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인원수는 공격군이 $\frac{2}{3}$, 방어군은 $\frac{1}{3}$로 정한다.
유희자는 모자를 써야 한다. 유희장은 그림과 같이 눈이 덮인 벌판이나 또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공격군은 습격조를 조직하고 각자 15 cm 정방형의 널판자로 만든 방패를 갖춘다.
유희 지도자의 공격 신호에 따라 공격군은 출발선에서 함성을 울리며 눈'덩어리로 사격하면서 진격한다. (10 m 이내에서 눈'덩어리로 맞으면 죽은 것으로 된다) 이 때 1 방어선 방어군은 공격군을 대항하여 눈'덩어리로 사격한다.
공격군은 방어군이 사격하는 눈'덩어리를 방패로 막으면서 계속 진격한다.

그리하여 눈'덩어리에 맞지 않고 1 방어선에 들어 선 공격군에게는 방어군이 공격하지 못 한다. (공격군도 1 방어선 방어군을 공격하지 못 한다.) 공격군은 계속 2 방어선을 향하여 돌진한다.
공격군이 2 방어선 3~5 보까지 진공하였을 때에는 방어군이 공격군과의 육박전을 진행한다. 육박전은 서로 모자를 벗기는 것으로 한다. 모자를 빼앗긴 유희자는 죽은 것으로 된다.
2 방어선을 돌파한 공격군은 방어군의 기수 호위들의 마지막 반항을 물리치면서 2 방어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돌격한다.
사령부의 점령은 호위들이 둘러 싸고 있는 기'발을 빼앗는 것으로 끝난다.
한 번 전투가 끝나면 공격군과 방어군을 다시 바꾸어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희는 한 번에 20 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

사격할 때 눈'덩어리로 얼굴은 때리지 말아야 한다. 유희 도중 눈'덩어리에 맞은 공격군이나 방어군은 자신이 유희장에서 나가야 한다.
육박전을 할 때 지나치게 상대방을 밀치지 말고 빠른 동작으로 모자만을 벗기여야 한다.

1964년 3월 중에 단, 분단, 반들에서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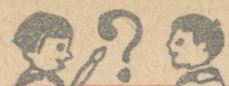
1. 졸업 및 진급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사업.

ㄱ. 1 년 간 배운 지식을 더 잘 알도록 복습, 실험, 실습을 잘 조직.
ㄴ. 《독서 행군》에 더 잘 참가하여 배운 지식을 풍부히하며.
ㄷ. 학업 성적이 낮은 동무들을 집단이 돕는 사업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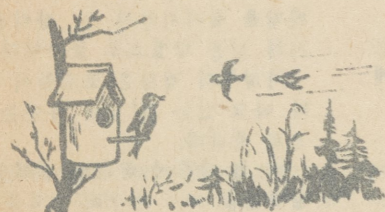
2. 공산주의 교양.

ㄱ. 당 정책 교양, 계급 교양, 혁명 전통 교양.
ㄴ. 애국주의 교양 (특히 소년단원들에게 향토에 대한 사랑의 정신과 장차 자라서 고향의 주인이 되며 사회주의 조국의 믿음직한 건설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양.)
ㄷ. 교복을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며 례절을 잘 지키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교양.

3. 소년단 조직 생활.

ㄱ.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모범 소년단》,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을 더욱 강화.
ㄴ.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민청에 가맹하도록 추천 사업 진행.
ㄷ. 민청에 가맹하는 동무들의 소년단 생활 총화 (필단)를 준비 있게 진행.
ㄹ. 4월 15일을 뜻 깊게 맞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 사업 진행.
ㅁ. 단, 분단 위원회와 반의 1 년 간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단, 분단 위원회와 반장을 선거하기 위한 준비 사업 진행.
❀ 단, 분단들에서 각종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식수, 과수원 만들기, 봄철 위생 더욱 강화.

현상문제

(인민반)

우리들이 잘 보호해야 할 유익한 새들과 동물들을 5개 이상 적으시오.

(중등반)

우리 나라의 명인들 중에서 외적과 싸움에서 용감한 장군들, 학문을 잘 하신 분들, 발명가들을 5명 이상 쓰고 그의 간단한 내용을 적으시오.

요술

물 건느기

준비품…작은 물병 2 개 (검은 병)

펑펑이 1 개,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 1 개, 물병 주둥이를 막을 필림 1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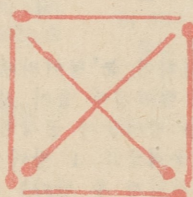
노는 방법

한 개의 물병에 물을 넣고 주둥이에 필림을 꼭 맞게 붙이고 꺼꾸로 세워 둔다. 다음 빈병 하나도 꺼꾸로 세워 놓는다. 다음 물이 들어 있지 않는 병에 펑펑이를 꽂고 주전자의 물을 넣는척 하다가 병에 물이 찼다고 짐작될 때 주전자를 들면서 물을 부어 정말 병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 처럼 보인다.

다음 주전자를 놓고 병에 꽂았던 펑펑이를 뽑는다.

다음 빈 병을 오른 손에 들고 물이 들어 있는 병을 왼 손에 들고 《물이 건너 갑니다. 물이 건너 갑니다》하고 몇 번 말하는 순간 왼 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필림을 다쳐서 떨어 뜨린다음 오른 손에 들었던 병은 땅에 꺼꾸로 놓고 왼 손에 들었던 병의 물을 주전자에 붓는다.

12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중등반)

양 ———————— 25 마리
오리 ———————— 50 마리
토끼 ———————— 75 마리

12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평양시 보통강 구역 신원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1 반 일동
평남도 순천군 순천 중학교 리 성희
평북도 운전군 대연 중학교 윤 석준
함남도 신상군 화동 중학교 염 죽엽
함북도 김책시 송중 중학교 남 계옥
황북도 사리원시 도림 중학교 윤 경덕

(중등반)

함남도 영흥군 영흥 중학교 김 문구
평북도 피현군 랑책 중학교 라 종신
함남도 리원군 라흥 중학교 한 효제
평남도 북창군 광로 중학교 김 춘실
황남도 장연군 박산 중학교 문 연옥
평북도 정주군 동문 중학교 리 강흥

잡지명 소년단 제 2 호 (루계 17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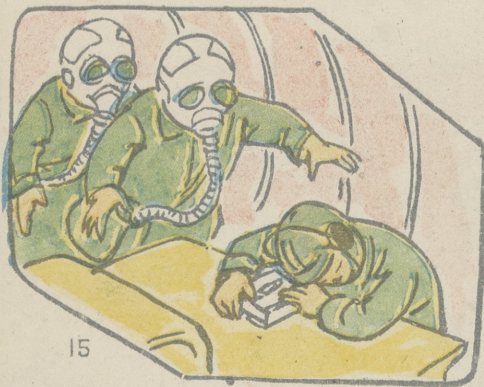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월 25일 발행 1964년 2월 1일

ㄱ—430003 값 35 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영양소	어떤 음식물 중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타민 에이 (A)	간유, 대추, 계란, 물고기, 고추	사람을 빨리 크게하며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밤눈이 어두워 진다(야맹증)(간막기조증)비타민 B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타민 비 (B)	벼, 보리, 입쌀눈, 계란 노란자위	밥맛을 좋게하며 사람을 빨리 크게한다.	각기병에 걸린다. (팔다리가 붓고 숨이 차지는병)
비타민 씨 (C)	배추, 사과, 도마도, 딸기	사람의 살과 내장의 활동을 좋게하며 전염병을 막아내는 역할한다.	괴혈병에 걸린다.(이'몸에서 피가 나오는병)
비타민 디 (D)	간, 간유, 계란 노란 자위	뼈를 튼튼히 하여준다 해'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몸에 많이 생긴다.	구루병에 걸린다.
단백질	간장, 된장, 우유, 두부, 계란, 조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과 내장을 만들어 준다.	사람의 내장을 튼튼히 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잘 자랄수 없다.
탄수화물	감자, 도라지, 고사리, 사랑, 밀가루	사람의 힘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	힘이 부족하며 맥이 없어진다.
지방질	콩기름, 락화생기름, 옥수수기름, 돼지고기	추위를 방지하며 살이 많이 오르게 한다.	사람이 여위게 되고 힘을 낼수 없다.
광물질	무우, 파, 홍당무, 호박	뼈 이빨 피등을 만들어 주어 소화가 잘되게 한다.	뼈 이빨 피를 만들지 못하며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며 몸안에 있는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내모는 역할 못한다.

글 안형룡 그림 안

⑮ 철광맥 발견의 첫 기쁨으로 들먹이는 가슴으로 무전실로 돌아간 명희는 땅속이란 생각은 잊고 시원한 바람이라도 쏘이고 싶어 창문을 열어 제꼈다. 삽시간에 이상한 냄새가 방에 가득차고 숨을 꽉 막았다.

명희는 취한채 무전대 앞에 쓸어졌다. 무전 결속 시간을 알려고 명희를 찾아간 창남이와 관식이는 생각할 사이 없이 방독면을 쓰고 명희를 물리 치료실로 옮겼다.

⑯ 《찌르릉 찌르릉》 기계실에서 울렸다.

《무엇이 나타난 모양이구나》

창남이는 급히 기계실로 달려 기의 저항곡선이 계속 낮아가며 고 있었다. 꼭 무슨 보물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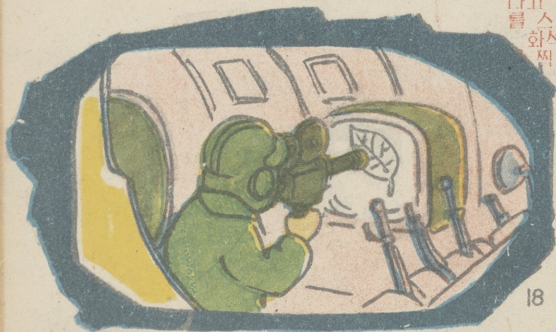
창남이는 명희에 대한 치료를 맡기고 암석 분석에 달라 붙었다.

《꽝 꽝》 기계팔이 돌을 깼다. 퇴적 암과 점판암이였다.

이 근처에 틀림없이 검은 금이 는 확신을 가진 그는 조종간을 다. 그러나 지상과 무전 련락을 데 명희가 쓸어졌다는 것을 생각 이 생겼다.

⑰ 석탄을 발견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쁨이 앞섰다. 그의 눈 앞에는 먼 옛날 석탄이 형성되든 이야기를 들려 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수 십 만 년 전 지구상에는 나무와 고사리, 쇠뜨기 등과 같은 식물들이 나무처럼 굉장히 크게 자랐다. 이런 식물들은 자연적으로 혹은 지질 작용으로 땅속에 파묻혔다. 이것이 수 십 만 년 긴 세월이 흘러 오는 동안 탄소만 남게되여 석탄이 되였다.…………

⑱ 창남이는 이상한 냄새는 메탄까스란 것을 알고 인츰 사방의 농도를 측정해 봤다.

이때였다. 테레비죤 영사막에 나무잎같은 것이 피뜩 보였다.

《화석?!》

화석이 있는 근처에는 석탄이 있을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과학자 선생의 말이 뇌리를 스쳐갔다.

화석을 찾아 낸 창남이는 촬영기로 화석을 찍었다.

⑲ 창남이가 촬영기 렌즈에서 눈을 떼려는 순간 《팡》 요란한 폭음과 함께 차가 뚝 멎었다.

차와 그들은 어떻게 되였을가?